

만남

교회표어: 믿음의 가문을 세우는 교회

2012. 11

특집 | 은혜와 감사

통권 466



대한예수교
장로회 영락교회

만남의 초점



‘2012 총동원 전도주일’ 만남의 현장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란 슬로건으로 ‘2012 총동원 전도주일’ 전도행사가 지난 10월 21일(주일)에 열렸다. 새 신자와 인도자는 함께 예배를 드린 후 제1, 2식당에 마련된 각 교구별 만남의 장소에서 준비한 다과를 나누며 교구목사님의 면담과 기도를 통해 결신을 확고히 하며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다. 사진은 18교구 만남의 현장.

〈사진 : 원종석 집사, 관련기사 60쪽〉

만남

2012.11 통권 466

교회표어 : 믿음의 가문을 세우는 교회 (창 18:19)

이달의 말씀 | 열매 맺는 인생 | 이철신 • 2

특집 | 은혜와 감사

좋은 부모님과 형제들을 주심에 감사 | 한경직목사 자술자서전 발췌 • 4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비결 | 김동호 • 7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 고문자 • 10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 | 진정자 • 13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 | 김회자 • 14

주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 오계환 • 16

전도여행중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 | 이은숙 • 18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 정세빈 • 20

시 | 사랑의 하나님 | 한서정 • 25

이달의 기도 | 하늘만큼 땅만큼 | 권오성 • 6

11월 목회력 • 17

교역자칼럼 | “사람의 신성은 감동을 통해서 깨어난다” | 이석우 • 22

블레싱2012 | 수능기도회 단상 | 함승수 • 26

연재만화(124) | 감사의 눈물 | 조위석 • 28

봉사의현장 | 성찬 포도주 이야기 | 이영희 • 30

북한선교 | 통일의 씨앗 「북한선교부 장학위원회」 | 구명희 • 32

선교보고 | 영적쓰나미가 몰려오는 인도네시아 | 김상현 • 34

교회학교코너 | 방과후학교에서 꿈을 찾다 | 김주연 • 38

건강가이드 | 장년층의 예방접종 | 박신애 • 40

젊은이광장 | 3박4일간의 도쿄 비전트립 | 지영해 • 42

구역모임교재 • 45

교회소식 • 49

• 영락교회 신앙지도 원칙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성서적 생활윤리의 훈련
교회연합 정신의 구현
세상에서 하나님공의의 실현

• 4대 목표

교육
선교
성도의 교제
봉사

• 2012년 11월호 통권 466호

• 발 행 2012. 11. 1

• 발 행 인 이철신

• 편 집 인 정문식

• 편집위원장 장덕진

• 편집위원 정영근 박일환 김홍범
서동희 조위석 김훈
강상진

• 교회소식 신영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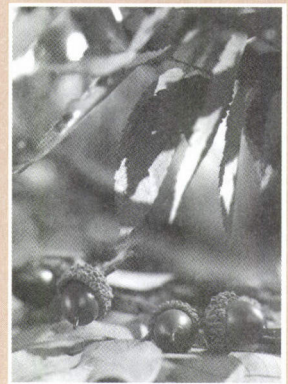
• 발행처 영락교회 홍보출판부

100-032 서울특별시 중구 수표로 33번지

전화 / (02)2280~0114(대)

http://www.youngnak.net

• 인쇄처 성원프린팅



‘주님이 주신 선물’

(사진 : 박흥기 집사, 표지디자인 : 정나리)

열매 맺는 인생



이 철 신 담임목사

한경직 목사님의 유산

한경직 목사님의 일생을 그린 다큐멘터리 영화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런 훌륭한 목사님이 한국 교회에 계신 것을 자랑스럽다고 말합니다. 어떤 학생은 한 목사님은 성자 중의 성자이시고, 이 세상 사람이 아닌 분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분은 영화 마지막 장면에 나오는 한 목사님의 말씀이 마치 자신에게 주시는 유언과도 같이 받아들여졌다고 말합니다.

영화의 마지막 부분은, 한 목사님께서 자손들에게 오디오 테이프에 육성으로 담아서 남긴 유언 같은 말씀입니다. 한 목사님은 유산 문제를 정리하셨습니다. 당신은 집 한 칸, 땅 한 평도 없는 사람이어서 자손들에게 남길, 눈에 보이는 유산은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혹시 한 목사님 명의의 땅이나 재산이 있다면, 그것은 개인 재산이 아니고 교회나 학교 등 공공재산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 글 등 모든 자료는 영락교회에 속한 것이라고 유언 공증까지 하셨습니다.

“좋은 씨를 많이 뿌리라”

그리고 한 목사님은 자손들에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 유언은 자손들뿐 아니라, 모든 영락교회 교인들, 더 나아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남긴 당부 말씀입니다. “이 세상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그저 나그네가 길 가는 것과 같은데, 내가 길을 가면서 꽃씨를 뿌리면 내가 지나간 길에 꽃이 많이 필 거다. 또 이 다음에 꽃이 피면 열매도 맺힐 것이다. 그러나 내가 지나가는 길에 혹 좋지 못한 씨를 뿌리면 잡초가 날 뿐이야. 내가 특별히 부탁하는 것은 그저 인생길 가면서 전도

할 수 있으면 전도하고, 사랑을 베풀 수 있으면 사랑을 베풀고, 도울 수 있으면 돕고, 좋은 사업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고 좋은 사업 하고. 그저 누구에게나, 어디서든지, 선한 씨를 심도록, 많이 뿌리도록, 오늘 우리가 많이 뿌리면 다음 세대가 거둘 것 아닌가. 또 한 세기 후에 거둘 것 아닌가. 그뿐인가, 하늘나라에서도 거두어.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좋은 씨를 많이 뿌리라.”

성경은 씨를 뿌리고 열매를 맺는 비유를 너무 많이 말씀합니다. 씨 뿌리는 비유가 대표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쁜 밭에 씨를 뿌리면 열매가 없고, 좋은 밭에 씨를 뿌리면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을 비유로 말씀합니다. 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요 12:24)고 말씀합니다. 씨가 떨어져 희생하고 썩고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입니다.

뿌린 자만이 거두는 열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죄를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또 성령은 하나님의 백성된 그리스도인과 항상 함께 계시고 동행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육체의 탐욕에 빠지지 않고, 죄의 유혹과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날마다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갈 5:22~23)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선한 씨를 뿌리는 사람들입니다. 전도하고, 사랑을 베풀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구제하고, 정직하고, 정의의 씨를 뿌리는 사람입니다. 오늘 씨를 뿌리면 내일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내가 열매를 볼 수도 있고, 내 자손들이 열매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그 열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매일 매일 선한 씨를 뿌리고, 믿음의 연륜이 오랄수록 더욱 많은 열매를 거두는 인생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만남**

좋은 부모님과 형제들을 주심에 감사하다

-한경직 구술자서전 '나의 감사' 중에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1년쯤 후인 줄로 기억한다. 우리 집에 다 른 어머니가 들어오셨다. 아버지는 홀로 올망졸망한 아이들 을 건사하며 1년 넘게 수고하셨으나 하루하루 일손이 바쁜 농촌 에서 독신생활을 계속하실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아무리 돌아봐도 후모님으로 인한 갈등은 없었던 것 같다. 다만 분명하 게 기억되는 것은, 후모님이 말씀을 잘하셔서 저녁이면 작은 방 에 우리 식구뿐 아니라 이웃집 아이들까지 들어차서 후모님의 맛 짭 나는 이야기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들은 일이다. 후모님은 이 이웃집 아이들도 부러워할 만큼 말씀을 잘하셨고 인자한 분이셨다.

보통 후모와 전처 자식들간의 갈등을 희화한 이야기가 많이 떠 돈다. 우리 한씨 문중에도 '갈품 한다, 솜 한가' 라는 전설이 전해 내려온다. 우리 조상 가운데 한 분이 상처 후 후처를 얻었는데 전 처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고, 후처가 와서 곧 아들을 낳아 두 아들 을 함께 기르게 되었다. 겨울날 전처 아들과 후처 아들에게 똑같 이 솜옷을 입혔는데 이상하게도 전처 아들은 항상 추워서 벌벌 떨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이상히 여겨 전처 아들의 옷을 뜯어 보니 그 안에 갈품이 가득 들어 있더라. 갈대에서 나오는 솜 비 슷한 것을 끌어모아 전처 아들의 옷에 넣어 입힌 것이다. 그런데 둘째 아들의 옷을 뜯어보니 진짜 솜이 들어 있더라. 그리하여 지금까지 우리 한씨 문중에 한 동네에는 '갈품 한씨'가 살고, 다 른 동네에는 '솜 한씨'가 산다. 나는 '갈품 한씨' 문중에서 태어났 다.

나는 요즘도 종종 신문에서 후모가 전처 자식을 학대한다는 기 사를 읽을 때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우리 후모님은 당신의 자식이나 전처소생인 우리들이나 똑같이 사랑하셨다. 사실 나를 낳으신 어머니의 사랑은 너무 어려서 희미하게 기억할 뿐이나 우 리 후모님의 사랑은 언제나 잊을 수 없고, 이런 어머니를 보내신 하나님께 감사드릴 뿐이다.

후모님은 우리 집에 오셔서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과 딸을 낳 았는데 그 아들이 바로 하나밖에 없는 남동생 한승직 목사다. 내 가 미국에서 공부하고 돌아와서 1년 후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 셧는데, 그때 한 목사가 열 살이나 열 두 살쯤 되었다. 하지만 감 사하게도 한승직 목사는 선교사가 세운 선천의 신성중학교를 줄

업하고, 의사가 되기 위해 만주 심경에 가서 의과대학에 입학했다. 그러나 해방 후 이남으로 내려와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목사가 되었다. 그는 인천에 제3교회와 서울 중곡동 교회를 세우고 목회하다가 금년(1981년) 봄 미국 일리노이 주 락포드 장로교회에 가서 봉사하고 있다. 가서 보니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에게 얼마나 복을 주셨는지 감사한 마음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위로 나보다 두 살 많은 누님은 결혼해 만주에서 사셨는데, 내가 미국에 가 있는 동안 소식이 뜸하다가 해방 후에 들으니 불행히 만주에서 세상을 떠나셨다고 한다. 하지만 불행 중 다행으로 누님 소생의 조카 중 영옥이만 월남해 한 때 보린원 일도 보고 대한화재에서 근무하기도 했다. 지금은 뉴욕으로 건너가 뉴



욕 한인장로교회 장로로서 부인과 함께 교회 일에 충성을 다하고 있다.

돌이켜 보니 우리 형제 중에 누님의 아들은 장로가 되었고, 나와 내 동생은 목사가 되었고, 동생의 맏아들 '세원' 군도 나성영락교회 부목사로 있고, 내 아들 한예원도 미국 일리노이주 얼바나 제일교회에서 목사로 있으며, 순희의 남편 곧 나의 사위인 이영헌 목사도 오랫동안 숭실대학과 장로회신학대학 교수로 있다가 지금은 대학원장으로 수고하고 있다. 이처럼 내 가까운 가족이 부족하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직자가 되어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있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다할 수가 없다. **만남**

하늘만큼
땅만큼

권오성 목사

색깔이 바랜 가을단풍처럼
땅은 진액 다 비워주고
열매로 채워주네

빛깔이 옅은 겨울햇살처럼
하늘은 파랑 다 쏟아주고
금빛으로 메워주네

겨울이 오는 소리
메마른 가지
드러난 논밭

텅비인 땅 텅빈 하늘
뒤돌아보며
되돌아보며

감사로 채우네
하늘을
감사로 메우네
땅을

감사로 겨울을 맞이하네
생명이 드디어 왔네

하늘만큼 감사하네
땅만큼 감사하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비결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주신 분께 대한
감사로 바꾸라!
~사무엘상 1~2장을
묵상하며~



김 동 호 목사
노원교구, 예배부 담당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해 고통받는 여인으로 사무엘상 1장에 처음 등장한다.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여인의 입지는 지금과는 사뭇 달랐을 것이다. 그야말로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으며 여인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기를 포기해야 하는 시대였다. 노동력이나 군사력이 부(富)나 힘을 결정짓는 당시의 사회구조로 볼 때 인력을 생산하는 문제는 여인에게 있어서 존립의 문제로 직결되는 중차대한 문제였다. 온갖 멸시와 천대를 받았을 것이며 여러 가지 사회적 불이익도 감수해야 했을 것이다. 이로 인해 한나에게 닥칠 여러 가지 심적 영적 변화를 예상해 볼 수 있다. 지속적인 패배감과 박탈감, 열등감은 한나에게서 감사를 빼앗기에 충분했다. 감사가 사라지게 만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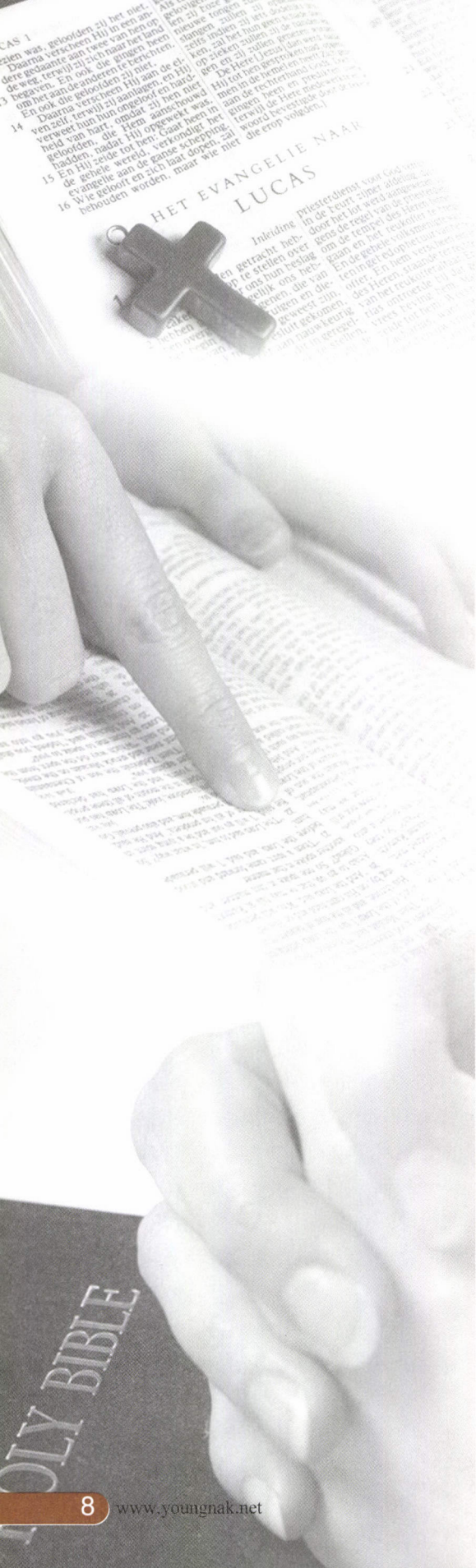
간절히 원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분명 능력이다. 그렇게 해야 한다. 그러나 나오기만 하면 다 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 믿음을 가지고 이미 받은 줄로 알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앉아야 한다. 한나 스스로 말하기를 자신을 마음이 슬픈 여자라고 한다(삼상 1:15). 불행하다는 뜻이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라. 한나가 그렇게 불행한 여자인가? 그렇지 않다. 한나는 사실 행복한 여자다. 한나는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한 가지 사실에 치우쳐 감사가 사라지고 나니 정말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 성경을 읽는 독자들 또한 마찬가지다. '한나의 아이 낳을 수 없음'에 몰입되어 하나님이 한나에게 주신 진짜 감사의 조건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그의 남편 엘가나다.

감사해야 할 조건

아이를 낳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사랑하고 감싸주는 한나의 남편 엘가나를 한나는 놓치고 있다. 오히려 아들을 낳아 안겨준 또 다른 아내 브닌나보다 한나를 더 사랑한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런 것을 교회에서는 은혜라고 부른다. 말로는 설명하기 힘들다. 상식으로는 납득되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다. 하나님께서 엘가나의 마음과 눈을 주장하셨다. 여인으로서 별 가치가 없는 한나를 더 사랑하도록 만들어 주셨다.

한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여자다. 생각해 보면 상처 받고 불행해야 할 사람은 어찌면 또 다른 아내 브닌나이지 않을까. 그토록 바라던 아들을 낳아 주었다. 그런데 남편에게 사랑을



특집 + 은혜와 감사

받지 못한다. 억울하다고 하소연해야 할 사람은 브닌나다. 아들도 낳지 못하는 한나를 더 사랑하는데 대해 실로에 올라와 밤새워 기도해야 할 사람은 브닌나다. 남편의 사랑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 모든 서러움을 한방에 날려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다. 현재 아이가 없을 뿐이지 앞으로 얼마든지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잠재력과 가능성이 한나에게 있다는 사실로 이해할 수 있다. 남편의 한나를 향한 애뜻한 사랑은 향후 모든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다. 실제로도 그렇게 된다. 한나에게 있어서는 정말 감사해야 할 조건이었다.

감사해야 할 제목

천재 바둑기사 이창호 9단의 이야기는 유명하다. 이창호 9단은 끝내기의 달인이라고 불린다. 거의 지던 바둑을 마지막에 뒤집는다. 상대방이 돌을 놓고 자신의 돌을 놓기까지 초읽기에 들어간다. 계시기가 “짜깁 짜깁” 소리를 내며 돌아간다. 초조해진 이들은 당황해하기 일쑤다. 그래서 엉뚱한 곳에 수를 놓곤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창호 9단은 초읽기에 들어가면 더 침착해지고 차분해진다. 기가 막힌 수에 돌을 놓는다. 한 번은 이창호 9단의 이런 능력을 취재하기 위해 어느 기자가 이창호 9단의 집을 찾았다고 한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창호 9단의 집은 시계수리집이었다고 한다. 그의 아버지는 30년 넘게 시계를 고치며 살아온 시계수리공이었다. 이로 인해 이창호 9단은 어린시절 이 시계수리집에서 수많은 초침소리를 들으며 자랐다. 그에게 있어 초침소리는 일종의 안정제였다. 초침소리를 들으면 보통은 초조해지거나 불안해지는 데 그는 오히려 마음이 안정이 되는 것이다.

인터뷰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한다. 어린시절 우리 아버지는 왜 사장님이 아닐까? 왜 우리집은 부자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더라는 것. 좋은 환경을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불평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것이 감사의 제목이다. 그가 천재 바둑기사로 끝내기의

달인으로 설 수 있었던 중요한 환경이었기 때문이다. 너무 바라는 것이 우리의 바람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종종 불평하며 감사의 조건을 보지 못하는 때가 있다. 그것에 몰입되면 하나님이 주신 더 크신 은혜를 발견치 못하게 된다.

힘들고 어렵지만 주변을 한번 둘러보라. 지금 당장에 감사의 조건이 없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창 50:20)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 한나는 아들을 주신다면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서원기도를 한다. 자신의 간절한 바람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을 것이다. 드디어 하나님께 시선이 머물기 시작한다. 이제는 소유가 목적이 아니다. 어찌면 내 부르짖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목적이다.

채무자의 의식으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의 문제는 원하는 것을 소유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로 다가서게 된다. 하박국선지자의 노래를 기억하고 있지 않나...,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에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라고 말씀하고 있다. 성숙된 신앙은 “없을지라도”의 신앙이다. 우리가 가진 것들, 눈에 보이는 재산이나 소유들은 없어질 가능성이 많다.

전쟁이나 재난, 질병이나 실패 때문에 없어지기도 한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한 가지 조건만으로도 즐거워하고 은혜 안에 있다는 한 가지 이유만으로 기뻐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가 기뻐 노래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얻어서가 아니다, 하나님 그 자체다. 그분 한 분만으로 기뻐할 수 있다고 고백한다. 주신 것이 없으니

받은 것도 없고 따라서 감사할 게 없다는 논리는 불충이요, 불신이다.

왜인가? 하나님을 채무자로 만들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무엇인가를 빌리신 적이 없다. 그래서 갚아야 할 것이 없다. 채권자는 항상 받을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 늘 달라고 한다. 반면 채무자는 늘 독촉에 시달린다. 항상 주어야 하고 갚아야 한다고 생각하며 살아간다. 신앙인의 삶은 채권자의식보다는 채무자의식으로 살아가야 한다. 그럴 때 항상 감사하다.

주신 분께 감사하라

무슨 할 말이 있겠는가? 죽는 자리에서 살려 주시고 생명을 주셨는데 무엇이 감사하지 않겠는가? 하나님을 채무자로 만들지 말아야 한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살전 5:18).

어떻게 늘 감사할 수 있나? 감사는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다. 이럴 때는 늘 감사하기 힘들다. 그러나 주신 분께 감사한다면 늘 감사 가능하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뜻은 무엇인가? 우리의 삶의 근거를 하나님으로 설정하라는 뜻이다.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뜻이다. 감사의 근거를 주신 것에 두지 말고 주신 분 하나님께 두라는 말씀이다.

우리들의 감사의 근거는 무엇인가? 감사는 주신 것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 아니다. 나의 주인 되시고 구원되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우리의 고백이어야 한다. 깊어가는 가을..., 풍성히 열매 맺는 계절이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감사의 제목들이 많다면 정말 복된 일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감사의 근거로 삼고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하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 **만남**

그리 아니하실 지라도...



고문자 권사
마포·영등포 교구

‘이’혜와 ‘감사’. 생각할수록 가슴 벅찬 단어들입니다.

이 시점에서 이 단어들에 대한 저의 생각을 꺼내 볼 수 있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의 제 형편을 아시는 분이 감히 ‘은혜와 감사’에 대한 제 글을 보신다면 조금은 고개를 갸웃거리실 것도 같습니다.

모태신앙 칠십여 년 세월에 제 의지로 “하나님의 은혜죠, 감사한 일 이죠”를 수없이 반복하고 살면서 그 말은 믿음생활을 하는 이에게선 당연히 나올 소리요, 또 그렇게 생활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은혜와 감사의 말은 거의가 좋은 형편일 때, 생각 외로 일이 잘 되었을 때 누구나 할 수 있는 울타리 안에 있었던 은혜와 감사였다는 것을 깨달은 지금은, 그간의 제 믿음을 돌아볼 수 있는 정말 귀한 시간을 받았다는 생각입니다.

2009년 10월 남편이 대장암 판정 수술을 받고 항암치료를 하는 동안 저는 주님이 우리 가정을 세우시고 원하셨던 예배와 감사가 부족했음을 고백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어찌할 줄 몰랐습니다.

항암환자에겐 해발 500m 이상 고지 지역의 산소가 아주 좋다고 합니다. 식사는 하루에 세 번 먹지만 산소는 24시간 먹는 거라고 생각하니 그 산소의 비중이 대단하게 생각되어 2010년 4월 항암을 하면서 강원도 평창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빙 둘러싸인 산골짜기의 모습이 마치 자애로운 하나님의 얼굴 같아 한없이 평화로움이 느껴졌습니다.

용기를 내어 남편에게 예배를 드리자고 했더니 별척 화를 내며, “내가 지금 천벌을 받아 이 형편이 되었는데 당신이나 드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들으실까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시골에서 태어나 특별히 종교생활을 하지 않았던 남편이지만, 결혼하면서부터 부인을 따라 나오는 정도의 교회 생활을 하다가 2002년 세례를 받고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바꾸면서, 집안의 장손이 마땅히 조상님께 드려야 할 제사를 안 드리는 것에 대해 크게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나 봅니다. 험한 투병 중 생명 지켜 주심에 대한 감사는커녕 이런 말이 나오다니 정말 두려웠습니다. 언제까지라고 할 것도 없이 바로 아침 금식에 들어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세상에 자식이 불효한다고 천벌을 내리는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며 한 달쯤 지났을 때, 마침 저희 교구 김명기 전도사님께서 강원도 둔내에서 열린 여교역자수련회에 오셨다가 저희 집을 심방하셨습니다. 구세주였습니다.

전도사님을 모시고 확실하게 예배를 드리고 금식을 끝냈습니다. 교회가 바로 앞에 있었긴 하지만 산골짜기 밤길은 정말 깜깜절벽입니다.

후레쉬는 들었어도 짙은 어둠길을 지나 십자가 불빛이 보이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습니다. 권사회를 맡았을 때 열심히 외운 찬송가를 내 판에는 큰 소리로 불러보지만, 오히려 우리의 믿음 없음을 비웃기라도 하듯 악한 영이 덤벼들지나 않을까 하는 정말 믿음 없는 발걸음이었습니다.

목사님 부부를 합해 5~6명이어서 빠질 수가 없을 뿐더러, 예배드리는 일을 더욱 철저히 해야 된다는 생각에 부지런히 참석했습니다.

남편의 그 천벌에 대한 생각도 흐려지고 4차 항암을 무사히 마친 즈음 5월 2일, 저 혼자 서울에 올라와 4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진동으로 해놓은 핸드폰이 자꾸 울렸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오니 교회로 마중 나온 아들이 아빠가 엄마를 터미널에 모셔드리고 돌아가시던 중 교통사고가 났다는 것이었습니다. 15분 정도 거리여서 전혀 걱정하지 않던 상황이었습니다. 충돌된 사실도 몰랐다니 약 복용으로 완전히 수면상태였나 봅니다. 반대 방향에서 중앙선을 넘어 오던 차를 한 바퀴 돌리고 우리 차는 옆 언덕에 멈춰섰습니다. 반대 방향 옆은 낭떠러지였고 그 차에는 온 가족 4명이 타고 있었답니다. 듣는 것만으로도 아찔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차만 폐차되었을 뿐 양쪽 차의 사람들은 정말 가벼운 상처 하나 없이 깨끗했습니다. 그 무서운 투병 중에서도, 또 이런 엄청난 사고 속에서도 생명을 지키신 하나님의 은혜에 어떻게 감사를 해야 할까요? 은혜였다고, 감사하다는 말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기다려도 남편은 계속 차가 좋아서 무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얼마나 그 말이 듣고 싶으셨을까요? 우리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얼마나 보고 싶어 하실까요? 그래도 기다리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산봉우리만큼 쌓였습니다.

6월초 6차 항암을 마치고 식사를 잘 드시기 시작하니 눈에 띄게 몸이 회복되어 갔습니다. 공해 없는 야채를 먹는다고 텃밭을 만들어 이것저것 가꾸다 보니 어깨가 몹시 아팠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정기검진 받으러 서울 병원에 함께 와서 진료를 받고 내려간 11월 23일 저녁, 보일러실에 다녀온다던 남편이 한 10분 후에 집안에 들어서면서 쓰러졌습니다. 깜짝 놀라 왜 그러냐고 일어서라고 했지만 눈동자만 이리저리 돌릴 뿐 일어날 생각을



항암치료 중이었던 할아버지를 보러 왔던 손녀 서연이와 찍은 사진입니다! 할머니가 늘 '항상 감사하다'는 말을 손녀도 똑같이 하여, 여러 선생님들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안했습니다. 시계는 밤 10시 15분이었습니다. '아차' 싶어 119를 불렀습니다. 병원까지 약 1시간 정도 걸려 도착했습니다. 왼쪽 뇌의 출혈이었습니다. 다행히 출혈이 적어 수술은 안 하겠다는 의료진의 말에 조금은 마음이 놓였습니다. 평상시 본인이 아침마다 혈압체크와 당뇨체크를 늘 하고 계셨는데, 극히 정상혈압이었고, 항암약 복용 후 당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이제 항암 끝난 지 겨우 5개월, 3개월 후 정기검진에서 깨끗하다는 판정을 받고 천하를 얻은 것

같이 기뻐했는데...

밤 1시가 넘어 수향교회 목사님 부부가 그 밤중에 대관령 고개를 넘어 권사님이 미처 챙기지 못하셨을 것 같아 갖고 왔으며 이부자리를 챙겨오셨습니다. 왈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몇 개월 잘 섬기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온 우주에 꽉 차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이튿날 중환자실에 들어가 얼굴을 보니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열흘을 지낸 후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서울에선 출혈이 많아 뇌세포 손상이 너무 커 회복이 어렵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분명히 출혈이 적어 수술을 안 하겠다고 했었는데 무슨 날벼락 같은 얘기란 말인가? 언어가 안 되고 한쪽 마비가 심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도저히 실감이 나지 않았지만 현실이었습니다. 아홉 차례나 병원을 옮겨 다니며 재활치료를 받으며 기도하는 중에 주님은 많은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세상을 보는 눈과 생각이 180도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서 귀하게 생각되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얻었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생각났습니다.

대장암 수술 때 잘못된 봉합으로 탈장된 상태로 23개월 동안 재활치료를 받고, 2012년 10월에 재봉합수술을 받은 남편이 한없이 안됐어서 살을 에는 듯한 아픔이 있었지만, 남편의 생명을 붙들고 계신 주님의 은혜가 파도처럼 우리를 덮고 있음에 절절히 감사한 마음입니다.

많은 환자와 그 보호자들을 보면서 생명 있음에, 한 발을 옮겨 놓을 수 있음에, 눈동자를 굴릴 수 있음에, 입을 열어 말할 수 있음에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왜 감사할 줄을 몰랐을까요?

태초부터 하나님의 은혜는 이 지구를 둘러싸고 있었고, 우리, 아니 나는 끊임없이 그 은혜를 감사해야 했는데 겨우 좋은 일이 터졌을 때만 감사하다고 한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지요.

남편의 치유를 위해 기도하면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 불에 던져지면서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고백했던 말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몸이 온전히 회복되지 아니할지라도) 우리 부부의 영을 새롭게 만져주신 은혜에 깊이 감사합니다. 저희를 위해 위로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는 목사님과 여러 권사님들께도 깊이깊이 감사드립니다. **만남**

OTT 난히 무더웠던 올여름 어느 날 우리 집 담장 밑에 2관 정도 무게의 음식물 쓰레기가 이웃의 누군가에 의해 버려져 있었다. ‘도대체 누가 버렸을까?’ 나는 순간 화가 났다. 나는 곧 그 묵직한 쓰레기를 담장 끝으로 옮겨 놓았다. 다음 날 나가 보니 또 다시 담장 밑 그 자리에 옮겨져 있는 것이 아닌가?

나는 더욱 화가 나서 집안으로 들어와 떼쓰는 아이와 같이 “주님,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는데 그 순간 “선으로 악을 이겨라!” 마치 번개가 머리를 치듯이 스쳐간다. 찬물을 맞은 것 같이 즉시 나의 열기가 식어지며 “네 알았어요, 주님!” 그리고 나는 생각했다. 집에 있던 종량제 봉투에 그 쓰레기를 다시 담아서 대문 밖 골목길 중앙에 있는 전봇대 밑에 놓아두면 수거해 가겠구나….

다음 날 아침에 딸이 갑자기 일회용 비닐장갑을 끼고 급하게 대문 밖으로 나갔다. 나는 영문을 몰라 “은혜야, 왜 그래?” 하며 따라가 보니 그 음식물 쓰레기를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내가 생각했던 그대로 그 전봇대 밑에 놓은 것이 아닌가! 나는 깜짝 놀랐다. 내가 생각했던 그대로 딸이 실천을 한 것이다. 성령께서 우리 모녀의 마음속에서 동일하게 역사하심을 느끼면서 감사를 드렸다.

“은혜야, 너 참 기특하구나. 엄마는 생각만 하고 내일로 미뤘는데 네가 나보다 한 발 빨랐구나!” 나는 딸에게 칭찬을 해 주었다.

다음 날 더 놀라운 것은 처음 누군가가 쓰레기 버렸던 곳 벽에 메모지를 붙여 놓았는데 ‘이곳에 쓰레기 버리지 마시고 자기 집 앞에 버리세요.’ 누구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그 범인(?)이 분명했다. 그래도 깨알만큼의 양심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봉투 값 아끼려고 쓰레기를 그대로 투기한 그분의 사정을 이해하기로 했다.

지극히 작은 일상 속에서도 주님의 세밀한 관심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며 기쁨으로 감사드리며 항상 선으로 악을 이기며 인내심을 갖고 살아야겠다고 다짐해 본다. 주님의 음성에 늘 귀를 기울이면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딤후 4:7~8) **만남**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



진 정 자 권사
강동·송파교구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



김 회 자 권사
서대문·은평교구
1여전도회 지회장
안내데스크 책임권사



권 사님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나요? 여러 번 이런 질문을 받고서 '무슨 이유와 어려움이 있어야 예수님을 믿게 되나요?' 이렇게 반문한 후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왜 주님을 중심에 모시고, 믿고 의지하며 살게 되었을까? 언제부터일까? 나는 죽음이 두렵고 죄가 두려워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이웃집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소중히 여기시는 그릇을 깨뜨린 후 야단을 맞을 일이 두려워서 동사무소에서 나누어준 쥐약을 먹고 죽은 일이 있었습니다. 6.25 전쟁 이후라서 우리나라가 몹시도 가난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어른들이 수군거리며 장례를 치르는 동안, 어린 내가 그의 죽음이 안타깝고 두려워서 깊은 생각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모두 죽는 것일까? 나도 죽게 되는 것일까? 그 후 어느 날, 학교에 다녀오는 길에 조그만 책자를 받게 되었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 전도 책자였습니다. 살펴보니 사람의 전신과 그 속에 양심을 의미하는 하트가 그려져 있었고, 화살 같은 빛들이 양심을 비추고 있었고, 또 어둠이 밖으로 쫓겨 나가고, 머리 주위는 광채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 책자를 보자,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서 착한 사람이 되면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 수 있겠다는 강한 느낌에 사로잡혔습니다.

며칠 후 무작정 부모님과 상의도 없이 종소리가 들리는 언덕 위의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고, 아주 작은 교회인데 신발을 벗고 들어가 앉았습니다. 목사님과 선생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며 교회에 가는 일이 참으로 즐거웠습니다. 내가 처음 배운 찬송은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였습니다. 내가 3살 때 온 가족이 바다에 놀러 갔다가 작은 오빠가 나를 튜브에 태우고 깊은 바다에 나아가 친구와 이야기를 하는 사이 잘못하여 내가 바다 깊은 곳에 빠져 버렸습니다. 나를 어디서 찾아야 할지 몰라 해수욕장이 발각 뒤집히고 온 가족이 발을 동동 구르는데, 때마침 밀려드는 파도를 타고 실신한 채로 모래사장에 던져졌다고 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서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살려 주셨던 것을 감사하며, 언제나 남은 인생을 덤으로 살고 있음을 기억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1968년 결혼식

부족한 저를 붙여 전공 담임선생님과의 만남으로 대학에 입학하게 하신 일, 미국에서 운전면허시험을 볼 때 스페인부부의 도움으로 합격한 일, 40세쯤의 중년의 부인으로부터 사기를 당하여 죽게 되었을 때 아들이 갑자기 배가 아파서 조퇴하고 돌아온 일, 사업에 큰 손해를 보았지만 다시 더 많은 축복으로 회복시키신 일, 자녀들이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해 주신 일(1남 1녀를 선물로 주시고, 손자 손녀도 주셨습니다) 등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믿고 감사하며 동행의 기쁨을 누립니다.

내가 배우자를 선택할 때에도 본인뿐만 아니라 믿음의 가정인지를 먼저 생각하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결혼할 즈음 내가 다니던 교회를 떠나 시댁 가족들이 다니는 영락교회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한경직 목사님께서 결혼식 주례를 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짝 지워 주셨다”는 말씀을 주셨고, 나중에 장로님이 되신 이동범장로님의 축송, 친구의 주기도문 축송을 들으며 축복 속에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 후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여 기도 드렸는데, 빛 가운데 십자가를 내 이마에 인치시고, 나의 지나온 인생을 TV처럼 선명하게 보여 주시고, 나는 병어리처럼 되어 회개하며 해산하는 고통을 겪으며 나도 모르게 나를 누르고 있던 짐들을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이루지 못한 꿈들과 오해와 의심과 염려와 슬픔을 내려놓았습니다.

속이 들여다 보이는 상자 속에 이 모든 감정들을 꺼내어 담아 놓고, 상처로 아프게 박혀 있던 못들을 뽑아내고, 남에게 상처주고 화해하지 못했던 못들도 뽑아내어 그 속에 넣었습니다. 그 상자를 잘 보이는 선반 위에 올려 놓고, 객관적인 입장으로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품고 바라보며 나 자신으로부터 조금씩 벗어나 자신을 조절하는 능력과 떠



2007년 가족사진(앞줄 우측은 남편 이영학 안수집사)

나보내는 법, 치유하여 회복하는 법, 나와 다르다 할지라도 사랑과 공화로 이해하는 법을 깨달아 가고 있습니다. 가족과 친척과 친구들을 교회로 전도하였습니다. 사탄이 우는 사자 같이 삼키려 할 때 피땀 흘려 기도하면, 밤이 지나면 새벽이 오듯 축복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고 있습니다.

부족한 저를 끝없이 용서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권사의 직분을 맡겨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도님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겠습니까? 예수님의 흘리신 피 값으로 산 우리가 구원의 기쁨, 믿음의 성장, 깨달음의 은혜, 전도의 사명, 구원의 확신으로 부활의 소망을 향하여 쉬지 않고 기도하며 주님과 손 잡고 달려가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내게 능력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빌 4:13) **만남**

주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오 계 환 안수집사
교육부 차장
고양·파주교구



결실의 계절입니다. 다가올 추수 감사절을 생각하며 저의 지난 일들을 생각해 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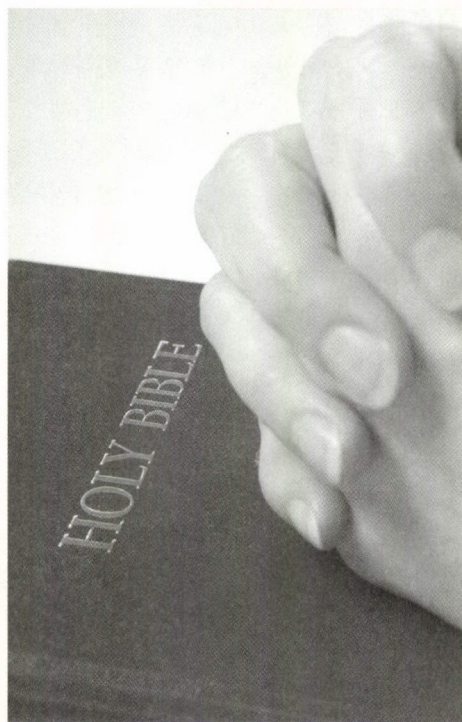
주님은 저에게 좋은 믿음의 부모님을 허락하셨고, 제가 3대째 모태 신앙으로 믿음 생활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또 기독교 문화 속에서 저를 성장케 하시고, 혼기를 맞아 믿음의 반려자를 허락하신 일과, 결혼 후 가정에 두 자녀를 선물로 주신 것과, 제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일을 할 때에도 주님을 100% 다 의지하지 않고 90~95%만 의지하고 나머지는 제 생각대로 해 왔음을 고백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살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어느 날, 부도로 인하여 물질의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저로서는 당시 매일 저의 힘으로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계속 기도해 왔는데, 그런 저에게 주님께서는 “네가 잘나서 산 게 아니고 모든 것을 내가 주었다” 하시며 저의 잘못된 생각을 깨닫게 하셔서, 주님께 100% 회개하며 기도를 드리니 다음날부터 주님께서는 하나씩 하나씩 실타래를 풀어 주셨던 일, 이러한 일련의 일들이 여러 번 있던 중 어느 해에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다쳤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다친 저의 몸보다는 주님께서 주시는 뜻이 무엇인가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당시 수술 당일에는 주님께서 평안을 주셨는데,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에 어떠한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평안이었음을 체험케 하셨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일들을 통해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살게 하신 일도 잊혀지지 않는 감사의 제목입니다.

어린 아이가 아프면



서 성장해 가듯이, 세상 사람들은 저에게 운이 나빠서, 재수가 없어서라고 말들을 하였지만, 그 일을 겪는 저에게는 그것이 오히려 축복의 시간이라는 걸 깨닫게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 때문에 어떠한 환경에서도 헤쳐 나갈 수 있게 굳건한 삶을 주신 한없는 은혜를 생각할 때에 세상의 방법과 주님의 방법이 같지 않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기도 하였습니다.

주변에 신앙이 좋은 동역자를 만나게 하시고, 교회학교 교사로 30년과 상담부 전화상담으로 15년 봉사를 잘 할 수 있게 도와주시며, 부족한 저의 삶을 인도하여 주신 주님은 지금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살전 5:16-18).”

항상 기뻐하라 하시며 주님이 주신 말씀이니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쁨으로 살려고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셨으니, 쉬지 않고, 숨을 쉬듯이 매일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님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려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하셨으니, 좋을 때만 감사하지 않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함을 가지고 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미련하고 부족하고 고집 센 저를 주님께서는 지금까지 인도 보호해 주셔서 제가 대인 관계에 있어서도 입장을 바꿔 생각하게 하시고, 세상을 단순하게 살게 인도하셨으며,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생각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주님 때문에 살맛나게 하시고, 이 시간 이후에 저를 주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여 주실지 기대하며, 바라옵기는 저에게 주어진 남은 삶을 오직 주님의 음성만을 들으며 감사하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만남**



11월 목회력



2일(금)	연합권찰공부
4일(주일)	찬양예배 성찬
11일(주일)	제직회
18일(주일)	추수감사주일
23일(금)	심방준비회
25일(주일)	사회봉사주일

전도여행 중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

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깊은 주님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체험하게 하셨다. 금년 1월부터 10월까지 예수전도단 제자 훈련학교에서 DTS 과정을 이수하게 되었으며 이 기회를 통하여 나 자신의 신앙훈련을 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다.

묵상, 예배와 찬양, 중보기도, 아버지사랑, 하나님의 다림줄, 성경적 세계관, 섬김과 다스림 및 7mind molder (가정, 교육계, 정치계, 예술계, 대중매체, 경제계, 종교계 영역 안에 주님께서 다스리도록 세워진 부분을 의미하는 7가지 영역) 등 이러한 강의들을 통해서 신앙생활의 재충전의 기회가 되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충만케 되었으며, 치유와 회복으로 강건하여졌다. 강의를 듣고 적용하고자 더운 여름날 감히 생각지도 못한 전도여행을 떠나게 되었으며, 전도를 실천함으로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영혼들을 찾아가 예수그리스도를 증거 하면서 전도함을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나의 마음을 기쁨으로 성령 충만케 하셨다.

전도여행 준비과정에서 복음을 효과적으로 증거 하기 위해 온몸으로 예배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근거를 둔 몸 찬양을 익히느라 무척 애를 썼다. 이 몸 찬양을 통하여 나는 8명의 팀원들이 함께 연합하여 하나 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여수엑스포와 주향교회에서

7월 23일 용산역에서 KTX 열차를 타고 여수역에 내리니 바로 엑스포가 열리는 광장이었다. 고온다습한 열기 속에 먼저 하나님께 몸 찬양으로 경배를 드렸다. 엑스포가 열리는 현장에서 중보기도를 드린 후 우리들은 곳곳에 흩어져있는 초·중학생들과 관람을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준비해간 전도용품을 나누어주며 복음을 전하였다. 전도용품으로 준비한 선물을 받아 즐거워하는 그 마음에 복음으로 인한 주님의 사랑이 심어졌으리라 믿는다.

다음날은 엑스포관람 입장표를 구입하여 엑스포 현장 안에서 2인1조로 국제관의 여러 나라 부스를 걸으며 그 나라 선교사님들의 선교확장과 그 나라 영혼구원을 위해 기도하였고, 여수항이 내려다보이는 곳에 서서 이곳에 모인 많은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했다. 일대일(1:1)의 전도는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보다는 앉아서 휴식을 취하는 분들에게 효과적이었다.

출발 전부터 우리 팀원 중 두 세 명이 신체적 연약함으로 더운물로서 샤워 할 수 있는 곳으로 예비하여 주실 것을 기도 하였다.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샤워시설이 있는 교회로 인도해 주셨다. 우리가 기도로 찾아간 주향교회는 1923년 설립되었고 1946년부터 시무하셨던 조상



이 은 숙 권사
강남교구



혁 목사님께서서는 여수에서 1950년 9월28일 손양원 목사님과 같은 날 순교하셨다. 순교의 역사가 있는 이 교회로 인도하심이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우리는 주향교회와 라양호 담임목사님을 위하여, 또 교역자들과 제직들을 위하여, 이 지역의 안 믿는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와 구원 받기를 기도하였다. 이 교회 표어대로 “오백 명이 일천 명 되는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땅 끝까지 선교, 미션, 교육하는 교회” 되도록 찬양과 중보기도를 드렸다.

진남시장과 광양교회에서

다음날 교회 부근에 있는 진남시장에 나가서 시장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다. 기억에 남는 것은 초등학교 3학년 정도의 어린 여학생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전혀 예수님을 알지 못한 가정에서 자란 그 아이에게 나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천지창조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 줄때 초롱초롱한 눈으로 진지하게 들으며 교회에 나갈 것을 약속 했는데, 주님께서 그 어린 딸을 예수님 품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기도했다. 또한 순천역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몸 찬양을 바라보시며 좋아하시던 박학순 할아버지, 김옥례 할머니께서 꼭 교회 나가셔서 하나님 영접하고 구원받기로 약속 했는데 그 영혼 위해서도 기도했다.

머무를 교회를 찾는 것이 막연했지만 기도로 마음을 합할 때 하나님께서는 머무를 숙소를 보여주시심을 체험했다. 각자에게 보인 한 개의 조그만 퍼즐조각들이 합쳐져서 그 무엇의 작품으로 되어가는 과정을 보면서 주님께서 인도하신 것임을 알게 되었다. 나의 실생활에서도 말씀묵상을 하며, 매일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이렇게 찾은 두 번째 광양교회는 주님의 사랑과 섬김에 본을 보여주신 교회였다. 매일 저녁 복음전도하고 교회로 돌아온 우리에게 아버지의

집같이 풍성한 식탁으로 섬겨 주셨다. 이 교회를 떠나기 전날 우리들을 섬겨주신 고마운 윤태현 담임목사님과 장로님, 여러 권사님들께 우리들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애찬식을 해 드렸다.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칭찬과 위로로 격려할 때 우리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짐을 보았다.

광주 겨자씨교회에서

세 번째 기도하면서 보여주신 교회는 광주의 겨자씨교회였다. 전도의 불이 붙어 매일 오전 10시와 오후 8시에 전도팀이 나가서 전도하는 본 교회는 전도에 열정적인 교회였다. 다음날 우리는 새벽예배를 드리고, 오전 10시 전도팀과 함께 기도하며 교회 주변과, 아파트단지, 재래시장 내에서 각 팀별, 구역별로 나누어져 복음 전도를 했다. 우리를 친절하게 인도해주신 겨자씨교회의 김기봉 부목사님께 감사를 드린다. 나는 광주역에서 교회의 전도지를 기차타기 전까지 전하였으며, 미국으로 유학길에 오르는 어느 한 대학생 만나 그에게 하나님 믿으며, 교회에 나가 신앙생활 잘하기를 마치 나의 아들에게 하듯이 권면하였다.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께서는 전도여행 후에 나에게 선물을 주셨다. 목 디스크로 인한 어깨 아픔을 치유하여 주셨으며, 유학 간 아들이 학업으로 지쳐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남으로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주일 성수 잘하고 학업에 최선을 다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린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단 12:3)” 이 모든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만남**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정 세 빈
강서·구로·양천 교구



지님의 계획과 도우심으로 영원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아버지의 병상일지를 간증할 수 있게 해 주심에 예수님과 교회에 감사드립니다. 올해 1월 초순, 건강하게 지내오신 아버지는 갑작스런 대장암 4기와 간암 판정을 받게 되었다.

수술이 불가피한 상황이라 포항에서 서울로 응급으로 올라오셨다. 마침 금요일 기도회가 있는 날이어서 이순옥 권사님께 중보기도를 부탁하고 고대구로병원으로 갔다. 주님의 계획과 뜻하심을 분명히 알기에 그 이상 생각을 할 수 없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거부하고 무시한 채 살아오신 아버지가 안타깝고 불쌍하게 느껴졌다. 응급실에서 순서를 기다리는 동안 심한 복수와 통증으로 호소하는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했다. 타이밍이 좋지 않다는 생각도 했지만 한시가 급했다. 그런 상황에 아버지는 짜증내고 화내고 모른다고만 하셨다. 그러면 그럴수록 침상 발치에서 예수님께 지원을 요청했다.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아버지가 붙잡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뿐이라고 했다. 애타게 불러 보라고, 그러면 만나주신다고 했다. 1박 2일을 응급실에서 보내신 아버지는 계속되는 심한 통증과 기다림으로 많이 지친 상태였다. 그때가 설날 하루 앞둔 날이어서 해당과 수술 팀이 거의 자리를 비운 상태였다. 기다림이 힘들어질 때 드디어 병실로 옮겨져 수술 일정이 잡혔다. 이런 상황들을 6교구 3여전도회 권사님들과 목사님께 실시간으로 기도 요청하면서 의지했다.

수술 당일 권오성 목사님과 여전도회 식구들이 심방을 오셨다. 목사님께서서는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 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으로 아버지에게 담대함을 주셨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수술 잘 받으시라고 하셨다.

수술시간이 거의 10시간쯤 걸렸을 때 담당 교수님은 수술이 잘된 것 같다고 안심을 시켜 주셨다. 주님께 무조건 감사했다. 수술실에서 나온 아버지의 모습은 들어가기 전보다 평안한 모습이었다. 수술 후 회복의 시간에 전도사님과 구역장님께서도 다녀가셨다. 전도사님의 아버지께서도 몇 년 전 대장암으로 돌아가셨다고 하시면서 아버지께 마태복음 28장 9절 말씀으로 어떠한 상황에도 주님의 평안을 말씀해 주셨다.

대장에 있는 암 덩어리를 제거하고 장루 수술을 하셨지만, 전이된 간암은 내과에서 진행 중이었다. 그즈음에 성경을 읽고 있었는데, 출애굽기 29:13~18 ‘대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꺼풀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위에 불사르고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으로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중략~ 그 숫양 전부를 제

단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이 말씀을 읽고 깜짝 놀랐다.

지금 아버지의 상태를 너무도 정확히 알려 주시는 말씀이라 생각하고 주무시는 아버지를 깨워 읽어 드리고는 다시 아버지께서 직접 읽으시라고 했다. 아버지는 그대로 하였고, 그 이후에도 시간만 되면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읽곤 하셨다.

영상의학과에 간 고주파 시술을 받으시러 가신 아버지께서는 그 의료진들 앞에서 기도를 좀 해도 되겠냐고 요청하시고는 출애굽기 말씀으로 기도 하셨다고 했다.

고주파를 170에서 180으로 올렸을 때 찢어지는 그 아픔의 순간을 견뎌내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여러 검사 상 간암의 잔재가 걷어졌다.

수술 1주일 후에는 병원교회 주일예배를 드리셨는데, 그때 주일 설교말씀이 마태복음 14장 24~30절이었다고 하신다. '베드로가 물위를 거닐 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 소리 지르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즉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하신 그 말씀을 굳게 붙잡으시고 "주여 나를 붙잡히 여겨주세요, 나를 구원해주세요~"라며 입술로 주님을 부르며 지난날의 삶을 회개하며 오직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셨다고 하셨다. 그 순간 어머니는 아버지의 뜨거운 눈물을 보시고서 함께 우시며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아주셨다고 하셨다.

주님 은혜 아니면 결코 해낼 수 없는 일이었기에 지금도 그 상황을 말씀할 때면 함께 기쁨으로 주체할 수 없는 깊은 감동이 있다. 그렇게 힘들었던 시간도 흘러 처음으로 아버지께서 영락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린 그날은 암 진단 받고 수술과 모든 급한 일이 어느 정도 수습된 3월말이었다. 항암 치료를 앞두고 있었기에 더 간절히 주님 앞에서 있길 원하셨다.

주일성수와 수요일 예배가 있는 날이면 자식들보다도 먼저 옷매무새를 가다듬으시고 준비를 하셨다. 장루가 여전히 밖으로 나와 있었기에 냄새

난다며 사람들 속에 있는 것을 어려워하시고 항암과도 싸움을 하시고 계셨다. 그러던 중 하나님은 다시 한 번 출애굽기 말씀으로 확증시켜 주셨다. 가능성이 희박하던 장루 복원 수술도 크신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케 되었다.

모든 상황을 목사님과 3여전도회 회원님들과 공유하면서 기도로 승리를 주신 힘이였기에 더욱 감사함이 넘쳤다. 그렇게 2주마다 하셨던 항암치료도 6월말로 끝을 내시겠다고 아버지께서 결정을 하셨다. 우린 더 하길 원했지만 아버지께서는 그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았다. 아버지의 의견을 존중하기로 하고 부모님은 포항으로 내려가셔서 요양(식이조절, 운동, 신앙생활 등)하기를 원하셨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구주로 생명의 주인으로 영접하신 후 아버지의 삶은 참 많이 변하셨다. 예배를 꼭 드리시고 말씀 읽기를 즐겨하시고 엄마와 함께 기도도 자주하신다고 들었다.

체중도 늘고 주님의 은혜로 사시는 것을 볼 때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이 떠오른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은 잃어버린 양을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저희도 믿음 따라 걸음마다 주님 따라 갈 것을 결단합니다. 끊을 수 없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버지의 어긋나고 빠뜨어진 기질도 주님의 성품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어린이와 같은 마음으로 말씀 받고 사모하는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의 그 눈먼 사랑에 받아주시고 품어 주심에 아버지의 마음문이 열려서 주님께 반응하실 때 감격하는 순간 눈물과 기쁨이 샘솟습니다. 이제는 믿지 않는 형제들 속으로 예수님의 사랑이 그대로 전해지길 고대하면서 그동안 보이지 않는 곳에서, 혹은 예배 때마다, 기도회 때마다 아버지의 구원과 병마와의 싸움에서 이기고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로 도와주신 목사님을 비롯한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만남**

“사랑의 신성은 감동을 통해서 깨어난다”

본능적으로 이끌리는 사람

사람은 누구나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본능적으로 좋아한다. 왜냐하면 사람의 본성이 그렇게 하나님의 따뜻한 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흠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실 때 그 숨결은 갓난 아기를 품에 안은, 세상에서 가장 부드럽고 따스하고 사랑스러운 숨결이었을 것이다. 그 부드러운 감동의 숨결이 티끌과 같은 무의미한 흠덩이의 존재를 살아있는 생령으로 깨우쳤다.

사람은 누구나 본능적으로 사람을 알아보는 천재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다. 본능적으로 마음이 끌리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 본능적으로 끌리지 않는 사람도 있다. 그 이유는 논리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것이다. 심리적으로 보면 마음이 차가운 사람은 더 많은 따뜻함과 사랑을 그리워하는 사람이다.

동네 집의 묶여 있는 개 옆을 지나가는데 일면식도 없는 개가 나를 보고 짓으면 무릎을 꿇고 회개하라는 말이 있다. 왜냐하면 동물도 본능적 텔레파시로 나의 인격의 상태를 알아보고 경계한다는 것이다. 내가 개 옆을 지나가는데 개가 짓지 않는다면 개도 나의 좋은 인품을 알아보고 경계를 해제하고 있다는 것인데, 나름 사실일지도 모를 이야기다.

하나님의 카메라에 찍힌 감동의 사진 한 컷

우리의 영과 감정은 공기와 같아서 서로 실체가 없는 바람처럼 특별한 행동과 말을 하지 않아도 정서적으로 활발하게 교류된다.

특별한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수많은 관계 속에서 서로 사람을 끌어당기고 움직이는 힘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사람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만들어진 존재이다. 태초에 사람은 하나님의 다함없는 감동의 숨결을 받았을 때 생령으로 살아났고 인간구실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사랑의 신성은 감동을 통해서만 깨어난다. 그래서 사람들은 서로 본능적으로 감동 있는 사람에게 자석처럼 끌린다.

영락노인복지센터에서 겪은 일이다. 추운 겨울 이른 아침에 몸도 불편하신



이 석 우 목사
성남·분당교구
영락사회복지재단

요양원 어르신께서 현관 밖에 휠체어에 앉아 계시기에, 왜 추운데 밖에 나와 계시냐고 물었다. 그 할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인즉, 밤새 눈이 와서 도로도 미끄러울 텐데 우리 목사님 무사히 오시도록 밖에서라도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감동이 목구멍까지 전달되었다.

요양원에서 누군가가 찬송을 부르기에 소리를 따라가 보았는데, 한 직원이 병상에 누워 계신 요양원 어르신의 배설물을 씻어내면서 환한 미소를 머금고 어르신을 바라보면서 찬송가를 기쁘게 부르는 것이었다. 누군가 자신을 보고 있다면 억지로 그렇게 보이려 했을지도 모를 일인데, 그분은 진심으로 하는 모습이 분명하게 보였다. 감동 어린 직원의 사랑의 손길을 통해 침상에 누워 계신 어르신은 가슴이 벅차고 감사해 할까? 그 순간 감격이 온몸을 타고 나를 깨끗하게 정화시킨다. 그리고 갑자기 부끄러워지기 시작했다. 나는 하나님의 카메라에 언제쯤 저토록 아름답고 감동적인 한 커트의 사진으로 찍혀질 수 있을까?

'감동'이란 걸 심리학 전문 용어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한문(感動)과 영어 (be moved)의 표현을 빌려보면 '마음의 움직임'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감동은 우리 삶에 없어서 안 될 필수라는 것이다. 감동은 내 마음을 신선하게 하고 삶에 활력을 넣어주며, 새로운 깨달음을 주기도 한다. 그건 몸으로 느끼는 즐거움이나 쾌락과는 다르다. 몸의 쾌락만으로는 마음이 움직이지도 새로워지지도 않는다.

감동은 죽음도 영광으로 바꾸는 힘

이 감동의 힘은 물리적인 수치로 계산되지 않는 대단한 위력과 파워가 있다. 필자는 지난 2007년 이라크 자이툰사단 군중참모로 파병되어 자이툰 교회를 담임한 적이 있다. 그때 바그다드를 방문하여 미군 사령부가 있는 후세인궁전에서 다국적군 사령관 페트리어스 대장을 만난 경험이 있다. 그때 그분과의 만남은 나에게 많은 생각과 영감을 주었던 소중한 시간으로 남아 있다.

그 당시 이라크에는 내전이 한창이었고, 그때까지 이라크에서 전쟁과 내전의 현장에서 작전 중 사망한 미군병사들이 약 3500여명을 넘어서고 있었다.

이라크에 파병된 병사들은 전쟁터로 파병 전 조국에서 미리 유서를 써놓고 파병에 임했다.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이다. 파병된 병사들은 주둔지에서 작전명령이 하달되면 완전무장을 하고 외부 작전을 나간다. 그때마다 꼭 몇 명의 병사들이 숨어 있는 적대세력의 공격에 의해 죽어 시신으로 돌아왔다. 그중에는 작전 중 적의 총탄에 의해 사망한, 미중부사령관(3성장군)의 아들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흔들림이 없었다. 오히려 전쟁 중 전사한

것을 명예와 자랑으로 여겼다. 저들의 그러한 이유가 사뭇 궁금했었는데, 파병 국가의 전체 지휘자인 페트리어스 사령관을 만나고 난 후 그 해답을 얻게 되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결국 감동적인 지휘였던 것이다. 감동은 병사들을 사지도 두려워하지 않고 적진에 뛰어들게 하는 위력이 있었다.

이른 아침 후세인공전을 거닐고 있을 때 내 눈을 의심하게 하는 장면이 있었다. 페트리어스 대장이 별 4개의 복장을 하고 일일이 파병된 수백 명의 미군병사들을 포옹하고, 그리고 뒤에 있는 성조기와 다국적국기를 배경으로 악수하며 사진을 찍고 있었다. 사령관이 전쟁터에서 그렇게 한가할 수 없을 텐데 수백의 일반 병사들을 일일이 포옹하고 악수하고 사진을 찍고 격려하는 한 장면을 통해서 나는 예수님의 성육신을 생각했다. 아래 지휘관을 시키지 않고 최고로 높은 사령관이 말단병사와 시선을 맞추고 나란히 포옹하며 사진을 찍을 때 파병 병사는 감동을 목숨과 바꾼다.

사람은 감동받으면 죽는 일도 마다하지 않는다. 전쟁터의 군인도 감동을 받으면 죽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다. 누가 수억 원의 돈을 받는다고 사지로 나갈 사람이 있겠는가? 휴가를 한 달을 준다고 해서 그것에 감동받고 사지로 나갈 군인이 있겠는가? 돈과 휴가와 표창장이 아닌, 지휘관의 진심 어린 마음에 병사들은 진한 감동을 받고 조국을 위해 목숨 걸고 명예롭게 사지로 가서 싸우는 것이다.

지구상 최고의 감동의 장소

그리고 보면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알고 보면 매우 쉽다. 내 마음을 알아주고 배려해주고 진심 어린 마음을 준 사람에게 끝까지 신뢰하고 헌신하고 충성한다. 차가운 사람도 감동을 받으면 증오가 녹아지고 상처가 치유되고 희망이 생기게 된다. 내 안의 사막화도 감동받으면 다시 짙어지고 희망이 살아난다. 사막 같은 사람들이 있다면 감동이 채워지지 않아서 생기는 현상이다. 사막도 비가 내리면 옥토가 된다. 옥토가 되면 30배 이상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 오늘도 우리는 감동받으려 산다.

이 세상에 최고의 감동의 장소가 어디인가?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이다. 주님께서 죽어 마땅한 티끌보다도 못한 흠덩이 존재인 나를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고 외치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숨결로 회복시켜 주신 곳이다. 그 감동이 오늘도 우리를 주님 앞에서 미치게 하는 것이다. **만남**

사랑의 하나님

생명의 원천이시며
빛 되신 사랑의 하나님
거울과 같이 맑고 투명한
주님의 마음은 고요한
연못과 같으실이라

주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여
해바라기가 해를 따라 돌듯이
주님만 바라보며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백합같이 순결하시며 향기로운
주님의 빛나는 옷자락은
마음의 감동을 주시는
은혜로우신 옷이었네

이세상의 학습 끝나는 날
평화로운 주님의 천성을 바라보며
기쁨의 찬송을 부르게 하옵소서 만남



한 서 정 권사
노원교구

수능기도회 단상

ST 능이 다가오면 거의 모든 학부모님들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녀를 향한 부모님들의 사랑이 교육을 통해 투사되는 한국사회에서 수능을 위한 기도는 매우 간절할 뿐 아니라 뜨겁습니다.

또한 기도하려 하는 부모님들을 돕기 위해 교회가 수능기도회를 실시합니다.

수능을 앞두고 100일, 40일, 세이레, 1주일 기도회, 그리고 수능 당일 기도회까지 다양한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영락교회도 학부모와 함께 모여 수능 당일을 포함한 기도회를 경건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능기도회에서 드러지는 기도의 내용,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부모님들의 기도 내용이 지나치게 기복적이거나 비성경적인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잘 몰라서 찍은 것이나 실수한 것이 정답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스워 보이기까지 하는 이런 내용의 기도제목들이 횡행하는 것을 들으면, 이게 거룩하고 공의로운 하나님께 하는 기도인지 그냥 해와 달을 향해 드리는 기도인지 분간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물론 수험생 자녀를 가진 부모의 답답하고 긴박한 심정을 이러한 솔직한 표현으로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특히 믿음이 어린 성도들의 경우 더욱 그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함 승 수 목사
중등부, 학원선교부

하지만 교회가 공적으로 인도하는 기도회가 이런 수준에 머물러서는, 자녀를 위한 우리의 기도의 수준이 이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국의 수많은 교회가 수능기도회를 개최하고 이 기도회를 인도한다고 할 때, 간절한 마음을 안고 나오는 성도들이 혹 자신의 욕망에 근거한 두려움과 이기심으로 가득 찬 기도제목을 가지고 나왔을지라도, 기도회를 통하여 자신도 모르는 상황에서 드리게 되는 이기적인 기도제목을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에 대한 큰 믿음에 근거해 자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로 이끌어야 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앞서 잠깐 언급한 것 같이 한국의 많은 교회들의 수능기도회들이 교인들의 욕망을 부추기고 그 수준에서 머물도록 하는 차원의 기도회를 유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인들이 많은 시간 기도하지만 자기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인도에 대한 신뢰로 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불안과 목마름만 안고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자신의 가장 절실하고 중요한 문제에 부딪힐 때 드러나고 또 성장하게 된다고 할 때, 수능기도회는 부모로 하여금 자녀들의 삶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헛되이 붙들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이 자녀의 인생을 좌우하신다는 참된 믿음 위에 서게 하는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로서 자녀를 위한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수능기도회에 나올 때는 자녀의 수능점수와 명문대학만을 붙들고 나왔지만, 기도 가운데 수능점수와 어느 대학에 가느냐 하는 자체가 내 아이의 인생을 좌우할 것처럼 안달했던 불신앙의 부끄러운 모습을 회개하는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를 잘 계발해서 이 세상을 잘 섬기는 사람으로 성장하길 바라는 큰 기도의 틀 가운데, 이번 수능과 대입이 하나님의 인도의 중요한 부분으로 역할을 하기 원하는 차원으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좀 더 나아가 수능기도회에 참석하여서 교육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수많은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신음소리를 대변하고 하나님께 신원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비정상적으로 아이들을 학업과 대학으로 몰아세워 치진 자녀들이 스스로 삶을 포기하고 마는 비성서적인 무한경쟁의 입시체제가 고쳐지도록, 모든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기쁨을 누리며 평화적 관계를 맞으며,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재능을 발견하고 개발해나가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한 수능기도회가 그런 것을 중보하는 자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수능 당일에는 세계에서 유래 없이 항공기 출항이 정지되고, 성인들의 출근마저 조정되는 과열화된 교육의 현장을 바라보며, 우리의 기도를 점검해야 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마 6:33).” 수능을 준비하는 우리의 기도가 개인이 추구하는 욕망의 장이 되지 않고, 자녀를 온전히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신뢰를 회복하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의와 나라가 이루어지는 교육현장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학부모님들, 한국 교회의 수능기도회를 소망하며 글을 마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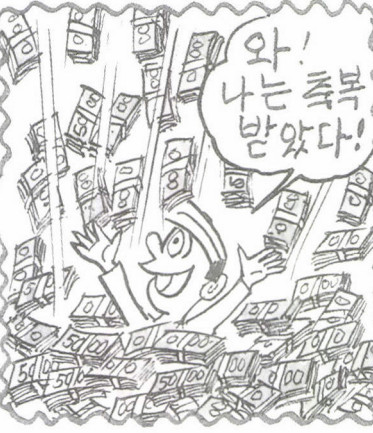
* 본 글은 정병오 교사, 방선기 목사, 박상진 교수 등의 ‘입시 바로 세우기 운동’의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음을 밝힙니다. **만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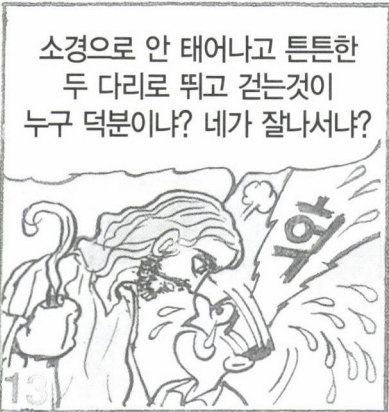


글·그림 조위석 집사
(홍보출판부 전문위원)
(TV-CF 감독)

감사의 달 특집

감사의 눈물





히 6:14

•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히 6:14)

성찬 포도주 이야기

(Sacramental wine)



이 영 희 권사
종로·성북교구, 성찬포도주 책임

말없이 헌신하는 모습들

영락교회는 매월 첫째 주일이 되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나눴던 성만찬을 상징하는 성찬예배를 드린다. 1년 중 1월과 10월 두 달은 1부~5부까지 대성찬으로, 나머지 열 달은 주일 찬양예배시 성찬예배로 드린다.

연합권찰공부가 끝난 후 포도주 담당인 나를 비롯한 4명의 권사들이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카타콤으로 들어간다. 포도주가 저장된 항아리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앉아 “사탄의 훼방이 없도록 강하게 기도해야 한다”고 늘 말씀하시던 이태원 전도사님의 당부를 기억하며 성령께서 먼저 준비하는 저희들을 주장하시고,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임재하심을 체험케 해주십시오고 간절히 기도드린 후, 맑고 고운 색이 될 때까지 고운 체로 여러 번 거르길 반복하여 포도주를 준비한다.

토요일 아침 예배부 목사님, 전도사님의 기도를 시작으로 포도주를 잔에 따르는 권사님들, 빵(전병) 그릇에 빵을 담은 권사님들, 성찬상을 덮어 두는 성찬보와 앞치마를 다림질하는 권사님들, 모두가 최선을 다하여 정성껏 준비한다.

드디어 성찬예배가 끝나면 누가 먼저라고 할 것 없이 성찬기를 설거지하고 깨끗하게 세탁해 놓은 마른 행주로 포도주 잔 하나하나 잘 닦아 정리한다. 그리고 다음 달의 준비를 위해 쓰고 난 행주를 당연히 자기가 해야 할 일인 듯 말없이 챙겨가는 두 권사님 등 모두가 불평 없이 헌

신하는 모습들을 보며 함께 일하는 내 마음까지 경건해진다.

해마다 성찬용 포도대금을 작성헌금으로 주시는 정혜옥 권사님

해마다 8월 초순이 되면 오래전부터 성찬용 포도대금을 주시는 정혜옥 권사님의 작성헌금으로 포도를 구입하기 위해 “서울의 대형 교회에서 사용할 성찬용 포도를 기르는 것에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있다”는 농장주인과 통화를 한다. 가능한 한 농약을 적게 치지만 소량이라 할지라도 포도에 직접 닿지 않도록 봉지를 씌워 정성스럽게 키운다는 아저씨는 오래전 우리 교회 부목사님으로 계셨던 김해수 목사님의 소개로 포도 공급을 시작했던 분이다.

아저씨는 포도가 지나치게 익어 껍질이 터지기 전 적당한 시기를 알려주고 교회의 모든 부서가 쉬는 월요일을 잡아 포도주를 담근다. 몇 해 전만 해도 9월 둘째 월요일이었던 것이 9월 첫째 주가 되었다가 8월 마지막 주로 당겨지더니, 급기야 유난히 무더웠던 올해에는 한 주가 더 당겨져 8월 20일로 날짜가 잡혔다. 기도로 준비하며 포도주를 담기 일주일 전 월요일의 행사로 항아리를 씻기 시작한다.

하나님이 주시는 적합한 시간

그동안 사용하고 비워 두었던 항아리를 카타콤에서 꺼내오고 봉사관 앞의 수도에서 물을 끌 어다가 세제가 아닌 밀가루를 물에 풀어 항아리와 뚜껑을 깨끗이 씻어 별이 잘 드는 마당에 줄을 지어 얹어 놓았다가, 물기가 빠지면 다시 바로 세워서 하나님이 주시는 자연 소독제인 햇볕으로 2시간 정도 소독한 후 카타콤으로 운반하여 정리해 둔다.

몇 해에 걸쳐 신기하게도, 비가 쏟아져 비옷을 입고 항아리를 씻다가도 말려야 할 시간이 되면 거짓말처럼 해가 반짝 나서 충분한 시간 동안 소독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며, 인간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귀한 사역임을 새삼 깨닫게 되었다. 몇 해 전에는 깨끗이 씻겨 햇빛에 반짝거리는 항아리들을 보고 교회 마당을 지나가던 한 아주머니가 어찌면 항아리가 이렇게 예쁠 수가 있냐며 한 개만 팔지 않겠냐고 말해서 권사님들이 눈길을 맞추며 미소를 짓기도 했다.

예전에는 성찬 봉사자들을 뽑는 조건이 지금보다 더 까다로웠다고 한다.

첫째, 신앙심이 깊어야 하고 둘째, 반드시 남편 없이 혼자된 권사님이어야 했다고 한다. 지금이야 의학이 발달하여 수명이 길어져 신앙 안에서 열심히 헌신하는 분들을 뽑는 것으로 알고 있다. 모든 것이 게으르고 연약한 믿음의 소유자인 내가 선택된 것은 부족한 것을 조금이라도 채워 주시려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싶다.

고 김찬빈 사모님(한경직 목사님 사모)으로부터 선배 권사님들이 포도주 담그는 방법을 잘 익히고 배워 전해 오던 것을 15년 전 은퇴하신 김성기 권사님의 자상한 가르치심으로 처음에는 보조역할을 하던 내가 포도와 설탕의 비율을 익히고 항아리 속에 담은 중간 중간에 조금씩 남겨 두었던 설탕을 마지막으로 항아리에 부은 포도



위에 하얗게 덮어 손가락이 들어가지 않을 때까지 꼭꼭 눌러 주는 것 등을 잘 기억해 지금까지 담아오고 있다.

올해도 총책임자인 안복희 권사님을 비롯한 21명의 권사님들의 헌신 덕분에 20개의 항아리들을 채웠다. 섭씨 15~17도의 온도를 유지하는 카타콤 속에서 6개월에서 1년 가까운 시간이 지나도록 충분히 숙성을 시켜 성찬용 포도주로 사용한다.

성찬준비실이 따로 없어서 설거지를 하기 위해 제1식당과 한목사님기념관 지하 식당, 또는 재정부의 좁은 개수대를 이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도 당연히 자신이 해야 할 일로 알고 헌신하시는 권사님들의 순종에 함께 참여함으로 기쁨과 감사를 느낀다.

이 지면을 빌어 좁고 구부러진 카타콤의 긴 굴속에서 무거운 포도주 통을 나르는 것이 힘들다고 말한 것을 기억하고 카타콤에 맞는 규격으로 요긴하게 쓸 수 있도록 손수레를 주문 제작해 주신 박명하 장로님과 유인모 권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또한, 주일은 다르지만 1년 중 별도로 젊은이 예배 4번, 국제예배 4번, 대학부 2번, 고등부 2번, 사랑부 2번 등 성찬예배를 드리고 있다. **안남**

통일의 씨앗 「북한선교부 장학위원회」

연 재 대한민국에는 고향을 떠나 자유를 찾아 탈북한 3만여명 가까이 이르는 탈북민들이 살고 있다. 사실 그들이 평생 살아온 고향과 집을 떠나 새로운 터전에서 새 삶을 살아가기로 결정한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자유를 찾아, 그리고 자녀들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목숨을 걸고 탈북하여 현재 이 자유의 땅인 대한민국에서 씩씩하게 살아가고 있다.

자유를 위해 목숨 걸고 온 자유의 땅

남북한 백성들은 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세월을 분단국가로 살아왔기 때문에 서로가 다른 세계에 살고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때문에 그들이 문화가 다르고 여러 가지로 다른 낯선 대한민국 땅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그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다시 새 삶을 살아가고 있다.

우리 영락교회에도 이와 같이 자유의 땅에서 새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영락교회는 그들을 '자유인'이라 부른다. '자유인'이란 신앙의 자유를 찾아 자유의 땅으로 온 사람들을 뜻한다. '자유인'이란 '새터민' 또는 '북한이탈난민' 등에 대한 명칭으로, 1999년 이철신 담임목사님의 제안으로 명명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현재 영락교회에는 130여명의 자유인 사람들이 함께 모여 매주일 오후 1시 선교관에서 예배(자유인예배)를 드리고 있고, 예배뿐만 아니라 성경공부 등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 신앙과 믿음이 자라며, 주님의 일꾼으로 성장해가고 있다.

영락교회 자유인예배는 장년부와 청년부로 나뉘



구 명 회 전도사
북한선교부 담당

어져 있는데, 주일예배는 함께 드리고, 예배 후 나누어져 성경공부를 하고 있으며, 두 분의 자유인 사역자들이 각각 장년부와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자유인 사역자들은 북한선교와 앞으로 다가올 통일에 앞장 설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기에 우리는 그들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고 응원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 품에...그러나 쉽지 않은 배움의 길

현재 자유인예배 청년부에는 50~60명의 청년들이 출석하고 있다. 혼자 탈북한 청년, 가족과 함께 탈북한 청년 등 자유인 청년들은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 자유의 땅으로 들어와 살아가고 있다. 대부분의 자유인 청년들은 대학생과 대학준비생들로 구성되어 있고, 자유인 대학 청년들 중에는 북한에서 대학을 다니다 온 친구도 있는 반면, 북한에서 혹은 탈북 과정에서 교육을 잘 받지 못한 관계로 대한민국에서 검정고시를 통해 어렵게 대학의 길을 밟은 친구들도 있다.

하지만 이들이 새롭고 낯선 땅에서 학업을 이어나간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이들은 그렇게 어렵게 학문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하지만, 대한민국 학생들과 나란히 경쟁하며 학업을 이어가는 일은 그들에게 있어서 큰 도전이 아닐 수 없다. 그

것은 마치 우리가 타국에 가서 여러 어려움 속에서 유학을 하는 것과 흡사한 상황이다. 낮에는 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저녁과 공휴일에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유지해 가는 청년들의 삶은 어려움 그 자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인 청년들은 그러한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씩씩하게 살아가고 있다. 무엇보다 이들 자유인 청년들은 앞으로 남북한 통일에 앞장 설 귀한 일꾼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대한민국에서 잘 적응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격려해야 할 것이다.

북한선교부가 설립한 '장학위원회'

이와 같이 앞으로 다가올 통일의 주역들이 될 자유인 신학생(사역자)들과 자유인 청년들이 주님 안에서 잘 성장하고 주님의 일꾼들로 거듭나기를 소망하면서, 영락교회 북한선교부는 '장학위원회'를 설립하게 되었다.

북한선교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행동으로 실천하기 위한 북한선교사업의 하나로, 북한을 탈출한 자유의 사람으로 학교에서 학업을 수행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인재를 발굴하여, 북한선교에 필요한 인물로 양성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장학위원회'를 설립하게 되었다. 2007년부터 장학위원회를 설립하기 위한 준비작업이 시작되었고, 영락교회의 두 분 권사님(김도영 권사, 김도선 권사)들의 헌금을 시작으로 2008년 1월에 장학위원회를 설립하게 되었으며, 또한 여러 성도들과 후원자들의 헌금으로 장학위원회는 운영되기 시작했다.

이와 같이 장학위원회는 통일의 씨앗을 조금씩 뿌리기 시작하였다. 장학위원회에서는 장학기금의 설치 운영과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장학위원회는 운영과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 집행하며, 본회 위원장은 북한선교부 부장이 겸직하고, 북한선교부 전담목사, 북한선교부 차장, 총무, 서기, 회계, 자유인예배부 부장, 자유인예배부 결연팀장 및 위원장이 추천하는 인사로 본회를 구성하고 있으며, 위원장은 본회의 총무, 서기, 회계, 감

사를 임명한다.

따뜻한 마음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장학위원회의 예산은, 장학헌금 및 찬조금, 기타 수입금 및 그 이자를 기금으로 하여 운영하고 있고, 장학금 지급 대상자의 자격요건은, 북한을 탈출한 자유의 사람으로 학교에서 정규 수학 중인 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하여 심사한 후 장학금을 지급한다. ①북한선교와 북한동포 구원에 헌신하여 북한선교의 일꾼으로 기대되는 자 ②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자로서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 ③신학을 전공하는 자. 이와 같이 장학위원회는 철저한 심사를 통해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현재 장학위원회는 자유인예배부의 2명의 자유인 사역자, 11명의 자유인 청년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고, 이러한 노력을 통해 자유인 신학생들과 자유인 청년들은 통일을 준비하는 복음의 일꾼으로 성장해가고 있으며, 자유인 청년들 중에는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는 영락교회 NK국제학교에서 훈련을 받는 등, 이 땅의 평화와 화해를 위해 앞장서는 하나님의 귀한 통일 일꾼들로 성장해가고 있다.

이렇게 장학위원회가 존재하고, 자유인 신학생들과 청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영락교회 성도들의 따뜻한 마음과 기도가 있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자유인 청년 및 신학생들의 장학금으로 헌금하시며 후원해주신 여러 후원자 성도님들의 따뜻한 손길과 마음을 통해 장학위원회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 없이 전하고 있다. 앞으로도 장학위원회는 많은 자유인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어, 그들이 통일의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통일의 씨앗이 될 것을 약속한다. 언젠가는 장학위원회가 뿌린 통일의 씨앗을 통해 많은 통일 일꾼들이 세워지고 열매를 맺어, 이 한반도가 복음을 통해 회복되어지고, 더 나아가 세계 복음화에 앞장서는 하나님의 귀한 제사장 국가가 될 것을 굳게 믿는다. **만남**

영적 쓰나미가 몰려오는 인도네시아



김 상 현 선교사
인도네시아 주재

인도네시아에 불어오는 영적 변화들

A New Wave is Coming!

한국 교회가 한창 부흥할 당시 1980년~90년대 우리 한국 교회는 연합과 일치룰 이루었습니다. 1984년 100주년기념대회 등의 대규모 집회가 교단을 초월한 연합을 기초로 행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가 하나될 때, 한국 교회의 부흥과 한국을 세계선교에 이바지하는 국가로 도약케 하셨습니다. 이제 그 부흥이 인도네시아 교회에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교회가 하나로 연합하고 일치하고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인도네시아에 영적 쓰나미를 일으키고 계십니다.

2012년 5월 14일~18일은, 인도네시아에 새로운 역사가 만들어지기를 갈망하시는 하나님의 애끓는 심정이 우리 안에 현실로 증거된 기간이었습니다. 바로 '세계기도성회' (World Prayer Assembly 2012, 이하 WPA2012)가 개최된 기간입니다. "새로운 물결이 다가오고 있습니다(합 2:14)"라는 주제로 인도네시아 SICC(Sentul International Convention Center)에 전 세계 90여개 국에서 약 2,500명의 중보기도자들과 인도네시아의 중보기도자들 6,000명, 총8,500여명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간구하였습니다.

WPA2012는 1984년 영락교회에서 개최되었던 '국제기도대회' (IPC : International Prayer Conference)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당시 전 세계에서 모여든 수많은 중보기도자들이 한국 교회의 기도 운동에 은혜를 받아 '국제기도본부'를 구성하

였습니다. 지금까지 지역별로 이루어졌던 기도운동이 전 세계가 하나되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제2회 세계기도운동으로 인도네시아에서 모이게 된 것입니다.

WPA2012는 인도네시아와 한국이 공동주최국이 되어 행해졌습니다. 인도네시아는 2004년 '쓰나미'라는 아픔을 가진 나라입니다. 고통과 신음을 간직한 땅, 인도네시아에 일어났던 쓰나미와 같이 그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영적 쓰나미가 몰려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인도네시아, 더 나아가 세상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하나되어 기도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인 가나혼인잔치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기사가 성경 요한복음 2장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기적을 그 누구도 알지 못하였지만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그 기적을 직접 체험하고 알게 된 물 떠온 하인들(요 2:9)처럼, 이번 WPA2012 세계기도성회를 위해 2년 전부터 인도네시아 WPA본부와 한국 교회의 중간 다리 역할을 하며 세계기도성회의 시작부터 끝까지 직접 체험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경함케 하신 '하인의 은혜'를 이 지면을 빌어 나누고자 합니다.

진정한 연합운동, WPA2012 세계기도성회

우선 WPA2012 세계기도성회는 조직이 아니었습니다. 열방 가운데 변화를 갈구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을 구하기 위해 다양한 교회와 크리스천 단체



WPA 2012 세계기도성회 광경

의 리더들이 함께 기도하는 성회였습니다. WPA2012는 단순한 하나의 행사, 이벤트가 아닌 전 세계에 기도의 불씨를 다시금 일으키는 교회와 세상을 향하신 성령의 부흥운동이었습니다.

WPA2012는 한국 교회에서 더 이상 찾아보기 힘든 진정한 연합운동이었습니다. 특별히 다양한 문화와 전통을 가진 인도네시아 교회들이 교단 간, 교회 간의 차이를 수용하며 인정하고,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다른 교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아름다운 연합과 하나됨을 만들어가는 인도네시아 교회의 우수성을 이번 기도성회를 통하여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WPA2012는 한 교단, 한 단체에 의해 주도되지 않았습니다. PGI(인도네시아교회협의회, 한국의 KNCC와 같은 기관), PGLII(인도네시아 복음주의 교회협의회, 한국의 한기총과 같은 기관), PGPI(인도네시아 오순절교회협의회), 더 나아가 Gereja Katolik Indonesia(인도네시아 카톨릭교회)에 속한 모든 교단, 교회들이 이번 WPA에 참여하였습니다. 5월 17일 GBK 스포츠장에는 12만명이 넘는 다양한 인종과 민족들이 함께 모여 계시록에 기록된 대로 각자의 언어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천국을 경험했습니다. 특별히 어린이와 청소년 2만명, 청년들 2만명 등 3세대가 함께 모여 다음 세대를 격려하고 그들이 이 시대에 요셉, 다윗,

다니엘, 에스터, 드보라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리더로 자라도록 기도하였습니다.

이날 성회는 인도네시아 378개 도시에 Indovision을 통해 생방송으로 중계되어 함께 기도하였고, 전 세계에 live stream을 통해 생중계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만 5백만 명이 각 처소에서 동일한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이번 성회를 통해 또 하나 개인적으로 새롭게 발견한 것은 인도네시아 교회 성도의 헌신이었습니다. 한국 교회에 비해 헌신도가 떨어진다고 여겼던 저의 교만함을 깨뜨리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성회에 중국에서 500명이 넘는 교회 리더들이 참가했는데, 그들의 항공료를 인도네시아 교인 한 명이 감당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성회를 위해 1,000대의 버스를 한 사람의 인도네시아 헌신자가 감당하였습니다. 헌신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인도네시아를 사용하고 계심을 발견하였습니다.

이 땅 인도네시아에서 선교하는 저는 참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에 부어주신 부흥을 경험하였고, 또한 한국의 경제발전을 경험한 사람임과 동시에 앞으로 인도네시아 교회의 놀라운 부흥을 경험할 것이고 또한 인도네시아 경제발전을 경



람뽕살롬신학교(앞줄 왼쪽 두번째가 필자)

힘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람뽕살롬신학교 건축을 위한 기도요청

이러한 영적인 상황 속에 제가 사역하는 람뽕살롬신학교 역시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영락교회 많은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신 덕분에 7년 동안 사용하지 못했던 저희 신학교 캠퍼스를 매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 캠퍼스는 지난 2003년 완공하여 4명의 선교사들이 함께 동역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2005년 람뽕의 광신적인 이슬람 단체가 저희 신학교 앞에서 데모하며 신학교를 부수려고 위협하였고, 저희 선교사들의 신분이 노출되어 람뽕 TV에 까지 방영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사건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신학교를 폐쇄하게 되었고 저희 신학교는 자체 캠퍼스를 놔두고 가톨릭 수양관을 세내어 신학교육을 계속하여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희 신학교에 여전히 큰 은혜를 베푸셔서 지금까지 총 125명의 졸업생들을 배출하여 람뽕을 비롯해 전 인도네시아 시골마을과 도시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교회지도자로 인도네시아를 변화시키는 귀한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셨습니다. 금번에 신학교 부지를 아주 좋은 가격(한국돈 약3억)에 매각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보다 안전하고 넓은 부지를 저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여호와이레' 되시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예비하신 캠퍼스 부지를 매입하여 그곳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대로 캠퍼스를 건축할 예정입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니아스살롬신학교를 통해 보여주신 에벤에셀의 은혜

또 다른 사역지인 니아스살롬신학교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2012년 11월8일에 제2회 졸업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나 교육적으로 낙후된 니아스 섬의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에벤에셀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도우셔서 영적으로 패배주의에 빠진 니아스 사람들을 영적으로 세우는 일에 니아스살롬신학교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니아스살롬신학교가 세워진 배경은 2005년에 일어난 사건에 기초합니다. 2005년 3월 부활절 다음날인 3월28일 새벽, 북부 수마트라주의 니아스 섬에서 7.3의 강진이 일어났습니다. 약 2천명의 희생자가 발생하고, 대부분의 집과 건물들이 무너졌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던 것은 바로 이 지역이 인도네시아에서는 몇 안 되는 기독교 지역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니아스섬은 70만명의 인구 가운데 약 90% 이상이 기독교도인 기독교 지역입니다. 그 당시 지진으로 인해 약 1,300여개의 교회가 무너지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가운데 700개의 교회는 완전히 전소되었습니다. 이러한 고통의 상황 속에서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깨닫는 가운데 니아스 섬의 영적인 안일과 타락이 문제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타락하고 침체된 니아스 섬에 한국 교회의 영성을 배울 수 있는 건전하고 올바른 신학교가 세워지기를 바라는 니아스 섬의 교회 지도자들과 뜻이 모아져 2005년 10월 임시로 교회건물에서 신학교를 시작하였습니다.

그 당시 영락교회 3역전도회 소속의 한 권사님께서 무명으로 3역전도회를 통해 헌금해 주신 3천만원으로 신학교 부지를 구입하고, 광주한결교회

의 헌금으로 건물을 건축하여 2006년 5월 25일 하나님께 봉헌예배를 드렸습니다. 니아스신학교의 시설과 교수진의 부족으로 인해 정식인가에 어려움을 겪다가 2011년 정식인가를 받고 2012년 3월 15일 49명의 1회 졸업생을 배출하였습니다. 그리고 2012년 11월8일 제2회 졸업식을 통해 약 30여 명의 학생들이 배출될 계획입니다.

이들은 앞으로 명목상의 기독교인으로 영적 무능력함에 빠져있는 니아스의 기독교인들을 깨우쳐 니아스 바로 위에 위치한, 강한 이슬람지역인 아제의 영혼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영적 군사들을 만들어 낼 것입니다.

인도네시아의 변혁을 꿈꾸는 자카르타 느헤미야목회훈련원

정규신학교 사역을 통해 인도네시아 교회 지도자들을 양성하는 사역 가운데 여러 가지 물질적, 영적 한계를 경험하면서 참 그리스도의 제자 양성에 대한 고민으로 출발한 자카르타 소재 느헤미야 목회훈련원(Nehemiah Ministry Training Center)이 지난 2010년부터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NMTC는 정규신학대학을 졸업한 예비 목회자들이 6개월 동안 합숙하며 공동체 생활을 통한 제자훈련, 기도훈련, 말씀훈련, 전도훈련, 목회 지도력 개발 등의 훈련을 받는 목회자 양성과정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처음으로 시작된, 한국의 신학대학원(M.Div과정)과 같은 전문 목회자 훈련 과정입니다(인도네시아에서는 신학학사학위만 취득하여도 목사가 될 수 있습니다).

훈련생들은 한국 교회의 영성인 새벽기도부터 저녁기도회까지 매일 강도 높은 훈련을 통해 인도네시아를 변화시킬 지도자로 양성되고 있습니다. NMTC는 현지 교단인 GMII(인도네시아복음주의 교단)와 함께 협력하며 모든 수료생들은 인도네시아 전 지역에 파송되어 사역하다가 1년 6개월 후 목사안수를 받게 됩니다. 이들은 깔리만탄이나 아제, 술라웨시 등의 현지인들도 꺼려하는 어려운 지역에서 담임목사로 사역 중입니다. 2010년 10월에



WPA2012에서 기도하는 필자

개원하여 현재까지 1기생 7명, 2기생 8명을 배출하고 3기생 13명이 훈련받고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그동안 훈련원이 하천가에 위치해 있어 훈련받는 전도사님들이 많은 고생을 하였는데, 지난 10월15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넓고 깨끗한 장소로 이전하게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하심 가운데 이루어짐에 다시 한 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NMTC를 통해 훈련받은 주의 종들이 이 땅의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며 느헤미야처럼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에 따라 변혁을 이루어가는 참된 영적지도자들이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땅에 일어난 영적 쓰나미를 통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나라를 만들어 갈 것임을, 그리고 이 일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한 사람들을 통해 행하실 것임을 확신합니다. 이 땅 인도네시아에 수많은 영적인 사람들이 일어나 이슬람으로 가득한 이 땅 인도네시아가 그리스도인들로 가득 넘치는 주님의 나라가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적도에서 엘 샤다이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반남**

‘방과후 대안학교’에서 꿈을 찾다!



김 주 연 집사
노원교구
방과후대안학교 학부모

“지 수 엄마, 지수는 어디 학원 다니나요?”
“과외하나요?”

초등학교 때부터 성적이 좋은 지수를 보고, 주위의 친구 엄마들이 묻는다.

그럴 때마다 나는

“지수는 교회에서 공부해요”라고 대답한다.

그러면 그들은 의아해한다.

내가 방과후대안학교를 알게 된 것은 약 5년쯤 전이다.

어느 날 주보에서 방과후대안학교 학생 모집 광고를 보았다.

영어, 수학, 성경을 가르친다는 내용이였다.

아직 지수가 초등학생이었기에 해당되지도 않는 내용이였음에도, 주보를 보는 순간 ‘나도 내 아이를 교회에서 배우게 해야지’ 라는 결심을 하게 되었고, 중학생이 된 지수는 지금 방과후대안학교에 즐겁게 다니고 있다.

사춘기로 한창 예민한 때에 신앙 공동체에서 공부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보호받는다라는 생각에 안심이 된다.

그래서 중학생 학부모로서 대안학교에 대해 느낀 점들을 소개하고 싶다.

우선,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열심히 가르치시며, 항상 기도해 주시는 선생님들이 계신다.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춰주시고 그들과 소통하며, 개인적 능력과 수준을 감안해 지도해 주시는 것 같다. 그 결과 점수가 2배로 오른 친구도 있다고 한다.

수업은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에 있다

둘째, 친구들과 어울려 공부하고, 수업이 끝난 후에는 축구도 하며 함께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조철한 목사가 인도하는 경건회 시간

를 절로 배우게 된 것 같다. 아울러 교회 마당을 내 집안 뜰처럼 생각하며 안심하고 편안히 뛰어 노는 것이 참 좋다.

셋째, 교회에 자주 가다보니 늘 교회가 익숙한 곳이 된 듯하다. 성전 뜰을 자주 밟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될지 기대된다.



방과후 대안학교 중1 영어수업시간

마지막으로 유창원 목사님과 박요한 전도사님을 모시고 매월 경건회를 가진다.

지도 집사님, 권사님과 함께 교과담당 선생님들, 학부모, 학생들이 모두 모여 예배드리고, 예배 후에는 나눔의 시간을 가진다. 예배 시간에는 아이들에게 꼭 맞는 좋은 말씀과 기도로 아이들을 영적으로 튼튼하게 해주신다. 경건회 후에는 한 달 동안의 아이들의 가정에서의 일상과 교회에서의 태도를 서로 주고 받으면서 아이들의 변화나 성적 문제 등을 의논한다.

교역자와 교사, 부모가 한 마음으로 아이들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으니, 어찌 그들이 잘 되지 않을 수 있을까.

지수는 자기도 대학생이 되면 방과후대안학교에 와서 선생님을 하겠다고 한다. 어떤 일을 하게 될지 아직은 모르지만 벌써 현신을 꿈꾸는 아이가 대견스럽다. 이렇게 성장하며 일생에 이룰 큰 꿈을 꾸리라 믿는다.

교회가 하나님 말씀만 듣고 예배하는 곳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교회에는 그 외의 유익도

많이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다. 교회에서 예배뿐 아니라, 공부하고 뛰어 놀고 하는 등의 즐거움이 있으니 방과후 대안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우리 아이들은 큰 복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이런 환경을 예비하신 하나님과 교회에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아름답게 수고하시는 선생님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만남**

이철신 담임목사님 TV방송 설교(안내)

* CTS 기독교TV

‘생명의 말씀’

* 매주 수요일 밤 10시 20분



장년층의 예방접종

6·25 동란을 겪으신 우리 교회의 어르신들 중에는 호열자(콜레라), 마마(천연두), 염병(장티푸스) 등의 전염병으로 가족이나 친구들을 잃은 기억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런 질환들은 치료약물의 개발과 위생환경 개선, 그리고 예방접종 실시로 거의 사라져가고 있으며 예전처럼 생명을 위협하지는 않습니다.

예방접종은 감염성질환의 예방에 가장 효과적이고 안전한 수단입니다. 예방접종을 받으면 우리 몸 안에 병원균과 맞서 싸울 수 있는 면역력(항체)이 길러집니다. 항체가 생겨 전염원과 싸울 힘을 얻게 되면, 일차적으로 질환이 예방되고 감염이 될 경우에도 심각한 합병증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예방접종을 생각하면 면역력이 부족한 아기들을 위한 접종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예방접종은 우리나라에는 흔하지 않은 감염성질환이 빈발하는 지역에 여행할 때에도 필요하며,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50대 이후의 장년층과 당뇨, 고혈압, 천식, 만성 간질환, 만성 폐질환을 앓는 환자에게도 권장됩니다.

이 글에서는 장년층에서 간과하기 쉽지만 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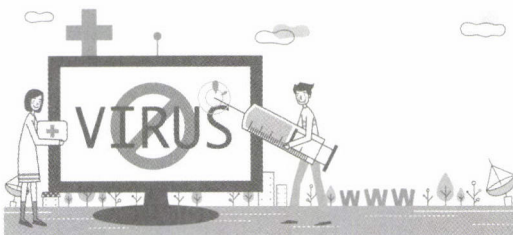
박 신 애
용산교구
의료선교봉사회
시립서북병원 가정의학과 과장

필요한 예방접종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1) 인플루엔자(독감)

인플루엔자는 해마다 건조하고 추운 11월부터 이듬해 4월 사이에 유행하며 일반 감기와는 달리 콧물, 기침, 인후통 등의 국소적인 증상보다는 발열, 근육통, 두통 등의 전신적인 증상이 훨씬 더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인플루엔자에 의한 사망은 건강한 성인에게는 드물지만, 65세 이상의 성인이나 만성질환을 앓는 사람에게는 폐렴, 중이염, 뇌염 등의 합병증이 자주 발생하여 입원이 필요하거나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있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50세 이상의 성인과 심혈관계나 폐의 만성질환자, 당뇨, 신부전, 항암제나 스테로이드 등의 약물을 복용하는 면역 저하 환자, 만성질환으로 집단시설에서 요양 중인 사람에게 적극 권장됩니다. 바이러스의 항원이 지속적으로 변하므로 매년 가을, 11월 이전에 접종하는 것이 좋으며 계란이나 백신성분에 과민 반응이 있는 경우는 주의해야



합니다.

2) 폐렴구균

폐렴구균은 지역 사회 폐렴과 뇌수막염의 주요 원인균입니다. 65세 이상의 성인과 고위험군에 속한 환자, 집단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55세 이상의 성인에게 예방접종이 추천됩니다. 65세 이후에는 일생에 단 한 번만 접종하면 되며 면역력이 저하된 환자는 5년마다 재접종이 필요합니다. 일반인은 65세가 될 때, 집단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는 55세에 접종하면 됩니다. 비장을 절제하거나 면역억제제를 투여해야 하는 경우에는 2주 전에 접종하는 것이 좋습니다.

폐렴구균에 의한 폐렴과 수막염은 장년기에 백신으로 예방 가능한 질환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질환입니다.

3) 파상풍- 디프테리아

발생이 많지는 않지만 질환의 심각성과 후유증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필요하다면 투여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DPT 백신이 1956년에 도입되어서 그 이전에 태어난 사람은 3회 기본접종(0, 1, 6~12개월) 후 10년마다 Td를 재접종해야 하고, 1956년 이후 태어난 사람 중 기본접종을 시행한 사람은 Td를 1회 접종 후 10년마다 재접종을 해야 하며, 기본접종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는 3회 기본접종을 시행하고 10년마다 추가접종이 필요합니다.

4) 대상포진

대상포진은 어릴 때 수두를 앓은 경우에 바이러스가 인체에 침입하게 되고, 우리 몸의 면역력에 의해서 대부분 소멸되지만 일부가 남아 있다가 나이가 들면서 피부 면역력이 떨어진다든지 정신적인, 육체적인 스트레스로 바이러스를 이



길 수 있는 힘이 약화되는 경우에 피부를 통해서 발진, 감각이상 등이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일반적으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그리고 면역력이 약화된 사람일수록 그 위험성이 크게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상포진은 띠 형태의 수포성 발진뿐 아니라 심각한 통증과 감각 이상을 동반하며, 여러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합병증인 대상포진 후 신경통은 대상포진 환자의 10~18%에서 발생합니다.

올해 6월부터 국내에 대상포진 백신이 공급되고 있으며 50세 이상의 장년층에게 권유됩니다. 백신을 맞게 되면 대상포진에 걸릴 확률이 반으로 줄어들게 되며 대상포진 후 신경통을 67%정도 감소시킨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만남**

3박4일간의 도쿄 비전트립



지영혜
'주는나무' 양찬미팀

특 석 연휴기간인 9.29~10.1 동안 일본으로 짧지만 알찬 비전트립을 다녀올 수 있었다. 청년부 주최의 일본 비전트립은 작년에 이어 이번이 2번째였다. 주된 일정은 도쿄 내 선교유적지 방문, 다마가와교회 방문 및 찬양집회참석, 미션스쿨인 다마가와고등학교 방문이었다. 다마가와교회로 가게 된 것은, 작년 비전트립 때 쓰나미 현장에서 봉사활동 시 몇몇 일본인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중의 한 분이 그 교회 담임목사님이셨기 때문이다. 1년 만에 목사님을 다시 뵈고 자유시간에는 온천지도 방문한다고 하니 작년 비전트립과는 또 다른 성격이어서 조금은 가볍고 즐거운 마음으로 갈 수 있었다.

아시아 최초의 순교자의 나라 '일본'

첫날 간 곳은 도쿄 내의 선교유적지인 다카나와교회와 아사쿠사교회, 그리고 크리스천 순교장소였다. 크리스천이 전체인구의 1%도 안 되는 일본에 선교유적지가 있다는 사실도 웬지 생소했지만 도쿄의 도심에 있다는 사실도 신기했다.

일본은 아시아에서 최초의 순교자의 나라이다. 일본 교회는 세계에서 가장 가혹하고 긴 박해의 역사를 갖고 있다. 로마 교회와 마찬가지로 일본의 교회는 순교의 교회이다. 우리가 방문한 교회의 소개에 앞서 먼저 간단히 일본기독교역사에 대해 말씀드린다.

일본은 1549년 무사들이 통치하던 전국시대에 에스파냐의 선교사 하비에르에 의해 기독교가 전해졌다. 중국은 1581년 마테오리치에 의해,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예배가 드러졌던 1785년에 비해

매우 빨랐다고 할 수 있다. 초기의 기독교는 당시의 무사들에게 상당히 인기가 있었다. 선교사들을 통해 서양문물의 도입, 병원, 고아원 등의 다양한 의료활동의 도입이 가능해졌을 뿐만 아니라, 삭막하고 허무한 전란의 시대에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 앞에서 만인이 평등하다는 사상은 당시의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그래서 60만명이 넘는 크리스천이 생겨났다 한다. 하지만 이러한 기독교 사상은, '천황은 신의 자손이며, 일본을 건국했다'고 믿는 일본의 사상과는 맞지 않았다. 유일신인 하나님의 존재는 일본의 건국과 천황제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기독교인에 의한 신도신자, 불교신자 박해사건과, 선교사를 포르투갈과 스페인의 일본점령의 스파이로 오인한 일 등으로 인해, 도요토미 정권 때 최초의 26명의 순교가 일어난다. 그 후로도 쿠가와 정권이 시작되면서 기독교박해는 더욱 심해져 일본은 두 번 다시 일어설 수 없을 정도로 기독교가 파괴되고 만다.

다카나와교회와 아사쿠사교회

1613년엔 금교령이 내려지고, 1623년 12월 에도(지금의 도쿄)에서 당시 기독교신앙의 리더 역할을 했던 선교사를 비롯해 50명의 기독교 남성

을 처형하는 순교사건이 일어난다.

처음 간 곳은 다카나와교회인데, 이곳에 당시 에도의 순교사건을 그린 그림이 있다. 그리고 교회 앞마당에는 이들의 신앙과 순교를 알리는 기념비가 있다. 이 사건 후로 여자, 아이 불문하고, 크리스천을 숨겨준 사람들까지도 모두 처형했는데, 당시 에도에서만 2000명이 넘는 대순교 사건이었다.(다카나와교회는 제2차세계대전 후에 몇몇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진 선교회가 발전한 것으로 지금은 성도가 1500명이 넘는 교회로 성장했다. 당시 순교지와 거리가 가까워 매년 11월에 순교자 기념예배가 드려진다고 한다.)

다음으로 간 곳은 아사쿠사교회로 당시 이 지역을 거점으로 활동한 크리스천을 체포해 이 교회로부터 약 500미터 떨어진 처형장에서 처형했는데, 이 교회 안에 이를 기념하는 순교기념비가 있다. 다카나와교회에서 아사쿠사교회로 가는 길에 후다노츠지라는 곳을 지났는데, 옛날 이곳에 사람들



일본 비전트립 출정식을 마치고... (뒤 왼쪽 첫번째가 필자)

의 왕래가 많아 방(榜)을 붙이고 처형장으로 사용했던 곳이라고 한다. 당시 선교사와 신자들이 체포, 추방, 개종을 강요당하고 순교를 당하였는데, 로마의 카타콤의 순교자보다도 더 많은 20-30만 명의 순교자가 있었다고 한다. 박해로 인한 순교자가 20~30만명 정도 나왔다는 것은 당시 크리스천 3명중 1명이 순교를 당한 셈이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에서 볼 때 일본의 일반 크리스천들도 신앙을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본은 이렇게 근세시대 약 250년간 혹독한 기독교 박해를 받아왔으며, 근대 이후 제2차세계대전 당시에 치안유지법이 제정되면서 다시 한 번 기독교는 박해를 받았다.

잇을 만하면 갈등에 마음 아파

교회 방문 후에 찾아간 곳은 도쿄의 다마가와 교회이다. 교회에 등록된 교인은 40명이 채 안되지만 일본에서는 꽤 큰 규모의 교회



도쿄 다마가와교회

이다. 이곳에서 전도집회와 주일예배로 2일 동안 교회분들과 함께 했다. 목사님 아이들과 함께 교회 주변에 나가 전도지를 나눠주고, 함께 한국음식을 먹으며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다. 어눌한 일본어로 웃으며 다가가면 그 친절하다는 일본사람들은 역시나 친절하게 전도지 받는 것을 거부했다. 처음엔 그 웃음이 차갑게 느껴지고 상처가 되기도 했지만 그렇게도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모습을 이제는 찾아볼 수 없게 된 그들의 모습에 마음이 아팠다.

이곳 교회는, 성도 수는 많지 않지만 한명 한명 하나님을 진심으로 대하고 사랑하는 모습이 보였다. 그중에는 4대째 신앙이 내려오는 집도 있었다. 자기들이 초대하고도 이렇게 맛있는 음식에 소중한 간증도 나눠줘서 너무 감사하다며 눈물을 흘리시는 분도 계셨다. 이들의 모습에서 그 옛날 순교를 마다않던 일본의 신앙의 선배들이 생각났다. 그리고 막연하게 일본선교에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던 나 자신이 부끄러웠다. 하나님은 분명 이들을 통해 일하실 것을 믿게 되었다. 이들 안에서 희망을 발견하고 기대하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은 알 것 같았다.

미션스쿨, 다마가와고등학교

마지막 날 오후에는 다마가와고등학교를 방문했다. 1950년 시편 1편의 말씀에 근거해 세워진, 일본에서는 매우 귀한 미션스쿨이다. 1년에 한 번 우리나라로 수학여행을 올 때마다 우리 교회를 방문하고 호산나성가대와의 문화교류 시간을 갖



도쿄 다마가와교회에서

는데, 올해도 10월 중순쯤 수학여행이 예정되어 있다고 한다.

일본은 세계교회사에서 그 예를 볼 수 없을 만큼 잔인한 박해가 있었다. 이러한 박해로 인해 일본인의 혼네와 타테마에라 불리는, 즉 겉과 속이 다른 심성이 생긴 것이라고 분석하는 사람도 있다. 복음에 무관심하고 냉랭한 그들이지만 그 옛날 누구보다도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들이기에 더욱 마음이 아프다. 셀 수 없는 우상과 퇴폐문화로 신음하는 모습도 마음이 아프다. 정치적인 문제로 잇을 만하면 생기는 갈등으로 또 마음이 아프다. 함께 간 모두가 이런 마음이었을 것이다.

사람인 우리의 마음과 능력으로는 다 이해할 수도 사랑할 수도 없지만, 주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새삼 알았다. 서로 마주보고 나아가면 함께 갈 수 없지만, 같은 방향을 향해 나아가면 함께 갈 수 있다는 다마가와 목사님 말씀처럼, 같은 방향, 같은 목표인 주님을 향해 나아가면 일본을 더욱 이해하고 사랑하며 일본을 위해 기도할 수 있을 것이다. **안남**

- 마음열기 : 지금까지 살면서 먹을 것이 없어서 혹은 금식이나 다이어트 때문에 주리거나 목마른 경험이 있었습니까? 만약 있었다면 그때 가장 많이 떠올랐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 찬송하기 : 목마른 내 영혼 (찬송 309장)
- 기도하기 : 하나님 아버지! 의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 말씀 읽고 나누기 : 마태복음 5장 6절

- 문제 1.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 문제 2.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의' 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자신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의' 는 무엇입니까?
- 문제 3. 당신이 지금 제일 갈망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여러분에게 어떤 만족을 줄 수 있습니까? 본문에서 '의에 주리고 목마르다' 는 것은 어떠한 상태를 의미합니까?
- 문제 4.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가 받는 복은 무엇입니까? (시 107:9, 요 6:35, 요 4:13~14)
- 문제 5.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대한 굶주림은 일시적으로는 채워질 수 있을지 모르나 영원한 만족이 될 수 없습니다. 참된 배부름과 만족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축복입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으로 인해 영적으로 배부름과 만족을 경험한 적이 있다면 그 은혜를 함께 나누어 봅시다.

- 마무리 기도하기 : 하나님 아버지!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주는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만족과 영적인 배부름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기도 1 (자녀가 부모님께) : 주님! 우리 부모님들이 물질과 소유, 세상적인 지위를 통해 누리는 만족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기도 2 (부모가 자녀에게) : 주님!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의 인생을 준비하고 삶의 방향을 결정할 때에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 가족이 함께 실천하기 : 가족이 함께 가까운 곳으로 가을 나들이 가기

- 마음열기 :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었을 때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 찬송하기 :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찬송 531장)
- 기도하기 : 예수님의 마음, 공홀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하소서.
- 말씀 읽고 나누기 : 마태복음 5장 7절
 - 문제 1.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받는 복은 어떤 복입니까? (7절)
 - 문제 2. 예수님이 말씀하신 공홀히 여기는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공홀의 마음을 품고 사람을 대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다음 본문을 통해 살펴보고 함께 생각해 봅시다. (마 14:14~21, 막 1:40~42, 눅 7:11~16)
 - 문제 3. 예수님은 스스로 말씀하신 것처럼 공홀의 마음을 품고 사람을 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공홀은 자신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자신을 핍박하고 조롱하며 결국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몬 이들에게까지 향합니다. 가상철연(십자가 위에서 남기신 예수님의 일곱 가지 말씀) 중 다음의 말씀을 살펴보고 예수님의 공홀을 다시 생각해보고 마음에 새겨봅시다.
 - 문제 4. 예수님은 공홀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공홀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은 공홀히 여기는 자의 복에 대해서 공홀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수동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일까요?
 - 문제 5. 예수님은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 자기 몸을 십자가 상에 아낌없이 내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공홀을 이미 누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공홀히 여김을 받은 자로서 우리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 마무리 기도하기 : 상대방을 향한 공홀의 마음을 품기 이전에 나 자신이 먼저 공홀히 여김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게 하소서.
- 가정기도 1 (자녀가 부모님께) :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부모님을 늘 공홀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늘 빛진 마음을 품고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부모님을 통해 가정과 일터와 발걸음 하는 모든 곳이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 가정기도 2 (부모가 자녀에게) :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바라볼 때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품은 마음을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통해 이 세상이 좀 더 따뜻하게 하옵소서.
- 가족이 함께 실천하기 : 가족이 함께 사회복지 단체에 가서 봉사하기

- **마음열기** : 캄캄한 밤에 반짝이는 별들을 볼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마지막으로 반짝이는 별을 보았을 때가 언제인지 나누어봅시다.
- **찬송하기** : 먹보다도 더 검은 (찬송 423장)
- **기도하기** : 예수님의 마음, 청결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 **말씀 읽고 나누기** : 마태복음 5장 8절
 - 문제 1. 오늘 예수님이 선포하신 복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의 마음은 무엇으로 더럽혀지는 것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16~17, 19~21) 말씀을 통해 각자의 마음을 살피봅시다.
 - 문제 2.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도덕적으로 청결한 자를 말할까요? 아니면 자신의 양심에 꺼릴 것이 없는 청결을 말할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그분의 삶을(요 8:28~29) 통해 청결한 마음이 무엇인지 살피봅시다.
 - 문제 3.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청결하게 할 수 있습니까? 각자 청결한 마음을 가지려고 어떤 노력을 하는지 나누어 보고, 무엇으로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할 수 있는지 알아봅시다. (잠 20:9, 요일 1:7, 행 15:8~9, 요 15:3, 엡 5:26)
 - 문제 4.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누리는 복은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삶은 어떤 삶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보는 삶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고전 13:12, 요일 1:3)
 - 문제 5. 여러분들은 순간순간 하나님을 보고 계십니까? 예수님처럼 청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의 마음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단순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청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경험하는 기쁨과 즐거움에 대해 간증해 봅시다.
- **마무리 기도하기** :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 말씀 따라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영락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 가정기도 1** (자녀가 부모님께) : 사랑하는 예수님! 우리 아빠, 엄마가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부모님이 되게 해 주세요!
- 가정기도 2** (부모가 자녀에게) : 사랑하는 주님! 우리 자녀가 예수님 닮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온유한 마음을 가진 아이로 자라가게 하소서!
- **가족이 함께 실천하기** : 가족이 함께 역할을 분담하여 집안 대청소하기

- 마음열기 : 가까운 친구 사이에서 일어난 다툼을 중재한 경험이 있는지 나누어 봅시다.
- 찬송하기 : 내 영혼의 그윽히 깊은데서 (찬송 412장)
- 기도하기 : 주님, 화평하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 말씀 읽고 나누기 : 마태복음 5장 9절
 - 문제 1.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고 그런 사람이 받는 복은 어떤 복입니까? (9절) 9절을 다시 읽고, 묵상한 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화평하게 함이 무엇인지 나누어 봅시다.
 - 문제 2.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요일 2:2)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화목 제물 즉, 화평하게 하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삶을 사셨습니까?(레 3,7:11~18 , 엡 2:14, 골 1:20)
 - 문제 3.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과 화평을 얻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사도 바울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화평하게 하는 삶을 살 것을 권면합니다. (롬 12:18, 벧전 5:14) 사도 바울은 사람들 사이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로 살기 위해 어떠한 삶을 살았나요? (고전 9:20)
 - 문제 4. 화평하게 하는 자로 사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가 가셨던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어지는 복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누리는 특권은 무엇일까요? (롬 8:17)
 - 문제 5. '평화의 왕' 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화평하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죄가 없으셨지만 죄인인 인간의 죄 값을 감당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이렇듯 화평하게 하는 자에게는 '희생'이 뒤따릅니다. 우리는 화평하게 하는 삶을 위해 얼마나 희생하며 사는지 나누어 봅시다.
- 마무리 기도하기 :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화평하게 하는 자로 살게 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 복을 누리게 하소서.
- 가정기도 1 (자녀가 부모님께) :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예수님과 같이 화평하게 하는 사람으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 가정기도 2 (부모가 자녀에게) :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이 그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화평하게 하는 사람으로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답다는 칭찬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 가족이 함께 실천하기 : 온 가족이 모여 가정예배 드리기



환영합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안에
 믿음 뿌리내리고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 성도 일동 합창 -

새가족 (등록기간 :9.14~10.14)

날짜	이름	교구	구역	날짜	이름	교구	구역	날짜	이름	교구	구역
09.14	이은채	7	19	09.23	하유준	12	0	10.07	주원숙	10	38
09.16	손정화	70	888	09.23	고성원	6	11	10.07	김택권	4	69
09.16	신선혜	16	43	09.23	김학철	5	0	10.07	조국현	8	30
09.16	이순자	16	62	09.23	김은혜	7	3	10.09	우수연	9	35
09.16	조윤희	18	0	09.23	신서연	7	3	10.10	심예훈	14	59
09.16	한지선	12	30	09.23	김은하	10	38	10.12	성재현	12	0
09.16	이경진	7	2	09.23	이선희	10	65	10.12	성주현	12	0
09.16	김태희	7	25	09.23	한영수	4	0	10.14	오민지	2	7
09.16	조윤정	13	9	10.07	안지훈	90	888	10.14	오민우	2	7
09.16	김정윤	10	27	10.07	손지후	15	16	10.14	최상림	15	4
09.16	강진숙	10	65	10.07	이분석	17	37	10.14	맹주환	3	0
09.16	전차운	4	78	10.07	한윤복	11	55	10.14	이현미	2	0
09.16	원숙자	4	0	10.07	강현민	5	60	10.14	최석원	4	0
09.23	김사랑	14	24	10.07	강지민	5	60				

(77은 국제예배, 80·88은 대학부, 90은 청년부, 0은 가등록, 99는 보류, 888은 교육부)

‘2012년 추양세미나’ 설악동 추양하우스서 열려



사(개회예배)를 비롯, 홍정길 목사(남서울은혜교회-기조연설), 박명우 교수(경민대-주제강의), 이재훈 목사(온누리교회-특강), 이동원 목사(지구촌교회-특강), 이성희 목사(연동교회-특강), 두상달 이사장(가정문화원-특강) 등이 나서 한경직 목사님의 삶을 재조명하고, 목사님의 고귀한 신앙과

한경직 목사님의 신앙과 삶을 기리기 위한 ‘2012년 추양세미나’가 지난 10월 4일(목)부터 3일간 설악동 추양하우스서 열렸다.(사진)

추양재단(이사장 강병훈 목사)이 주최하여 ‘네가 어디 있느냐 - 한경직 목사에게 배우는 오늘의 나라사랑’을 주제로, 강원도 속초시 설악동 추양하우스에서 열린 ‘2012 추양세미나’에는 이철신 담임목

정신을 배우며 이어갈 것을 다짐했다.

또 둘째 날 진행된 산상기도회는 양광모 목사(정릉제일교회)가, 이틀간 새벽예배는 김은섭 목사(영락교회)와 김평래 목사(온누리교회), 찬양 및 기도회는 강신중 목사(남서울은혜교회)와 최봉수 목사(여주기달곶교회) 등이 순서를 맡아 진행했다.

【정리 : 신영삼 안수집사】

이창로 원로장로, 주선에 은퇴권사 총회창립 100주년기념예배서 공로포상 받아

우리 교회 이창로 원로장로님과 주선에 은퇴권사님이 지난 9월18일 저녁 서울 소망교회(김지철 목사)에서 열린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창립100주년 기념예배에서 공로포상을 받았다.

이 날 평신도부문 수상자로 선정된 이창로 원로장로님은 기독교학교의 발전에 기여하고, 평신도 대표로 WCC, WARC 등의 국제적 교회연합활동에 적극 참여한 공로로, 교회학교부문 수상자인 주선에 권사님은 숭실대학교 기독교교육과의 최초 교수와, 장신대 교수로서 기독교교육 및 기독교교육학 설립 및 발전에 공헌한 업적을 인정받아 공로패를 받은 것이다.

이밖에 각 부문별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 △ 목회자부문: 방지일 목사, 림인식 목사(중경총회장)
- △ 신학교육부문: 박창환 목사(전 장신대 교수·학장)
- △ 세계선교부문: 서정운 목사(전 장신대 총장)
- △ 사회봉사부문: 김신태 목사(실로암안과 병원장)
- △ 평신도부문: 이연옥 권사(여전도회 전국연합회



공로패를 받은후 기념촬영을 하는 이창로 장로님(앞줄 오른쪽 두번째)과 주선에 권사님(세번째)
왼쪽은 이철신 담임목사님

명예회장)

- △ 선교사부문: 언더우드선교사 가문, 린튼선교사 가문, 마펏선교사 가문

동정

황인수 장로,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로부터 감사패 받아

황인수 장로(사진, 영락기도원 원장)가 지난 9월 27일 사단법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이사장: 홍정길 목사)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의 이 같은 표창은, 황 장로가 지난 1990년 동 연구소 창립 시부터 현재까지 기도와 물질로 꾸준히 후원해 오고 있어, 설립 30주년을

맞은 동 연구소가 연구소 발전에 공헌한 이들에게 감사의 뜻으로 표창한 것이다.

황 장로는 이 밖에도 사단법인 한국·캐나다 문화교류협회 3대 회장을 역임하고, 현재는 고문으로서 캐나다 토론토대학교 한국학(동양학부) 장학위원을 역임하면서 1995년부터 매년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한국사회학회 학회장으로도 활동해 오면서 관련 단체들로부터 여러 차례 표창을 받아왔다.

사랑부, 다큐멘터리 '한경직' 단체로 관람



이날 오후 2시 낙원동 '허리우드 클래식'에서 가진 단체 관람에서 사랑부 가족들은 영화 한 장면 한 장면마다 관심을 집중하며 관람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

스크린에서 한 목사님의 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일어설 줄 모르는 학생, 그리고 교사들의 눈자위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좋은 영화를 보게 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박수를 보내고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교회 여러 단체들이 다큐멘터리 '한경직'을 단체로 관람한 가운데 사랑부 60여명의 학생과 교사들도 지난 10월14일(주) 오후 단체로 관람했다.

[송재봉 집사]

'극동방송 찬양합창제' 10월29일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서 개최

우리 교회 시온찬양대가 참가하는 '제29회 극동방송 찬양합창제'가 10월29일(월) 오후 7시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개최된다.

극동방송이 주최하는 이 찬양합창제는 1976년부터 매년 개최되어왔으나, 최근에는 2년마다 개최되고 있는데, 역사적으로나 규모면에서 우리나라 최고의 찬양합창제라고 할 수 있다. 우리 교회 시온찬양대는 매회 빠지지 않고 참여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박영근 작곡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나이다' (시:139)와 John Rutter 작곡 'Gloria' 제3악장을 연주한다. 특별히 첫 번째 곡은 베들레헴찬양대를 지휘하는 박영근 장로가 새로 작곡하여 처음 발표되는 곡이어서 더욱 기대 된다. 이번 찬양합창제에는 영락교회 시온찬양대를 비롯, 여의도순복음교회, 지구촌교회, 상암동교회, 역곡동교회, 해오름교회, 화광교회 찬양대와 솔리데오장로합창단 등이 출연한다.

[제공 : 이승호(시온찬양대)]

선교관을 황홀케 한 '칼트리오'의 두 번째 콘서트

칼트리오 두 번째 만남이 9월22일(토) 선교관에서 있었다. 가을 문턱에서 서로 다른 삼색의 아름다운 음률이 풍성한 소리로 관객을 황홀하게 했다. 갈보리 찬양대에서 찬양 봉사하는 박성희(작편곡 및 피아노) 대원, 김유선(가야금) 대원, 김은선(플루트) 대원의 연주, 작년(9월3일 창단연주)에 이어 두 번째 공연이다.

최경영 목사의 기도와 정유진 대원의 사회로 시작된 이날 연주는 피아노, 가야금 그리고 플루트의 절묘한 화음과 음률, 그리고 새롭게 편곡되어 이전 곡은 지나가고 새 곡이 된 청아한 연주에 많은 관객들을 사로잡았다. 특히 객원연주자로 Madal Ssanka(네팔예배 타악 연주자) 협연과, 관객 중 네팔, 몽골, CISI(독립국가) 여러 나라의 가족들과 함께하는 자리여서 더욱 아름다웠다. 공연 후에는 차인테 장로(음악부장)의 격려사와 격려금도 전달되었다. 칼트리오는 여러 기관 및 단체에서 초청을 받아 연주하고 있다. (칼트리오 : Hp 010-9599-8178)

【송재봉 집사】



제3회 발달장애인찬양제, 안산제일교회서 열려



제3회 발달장애인 찬양제가 지난 10월13일(토) 안산제일교회(고훈 목사) 본당에서 성대하고 활기찬 잔치로 막을 내렸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사회봉사부 주최로 금년에는 안산제일교회와 발달장애인선교연합회 주관으로 개최한 이날 찬양제에 앞서 최대열 목

사(발달장애인선교연합회 회장)는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쁨과 소망, 그리고 축복의 시간이 되자”는 인사말에 이어 김동엽 목사(총회 부총회장)는 “하나님의 크신 선물”(요 3:16절)을 주제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 번 깨닫게 하였다.

김성대 장로(안산제일교회 수석장로)의 개회선언으로 시작된 찬양제는 개그맨 김진철과 개그우먼 신고은 사회로 진행되었다. 시종일관 재치 있는 사회로 참석자들의 함박웃음이 계속되었다. 12개 교회 장애

인 부서(사랑부)가 참석한 가운데 영락교회 사랑부는 네 번째로 발표하게 되었다. 준비를 많이 한 학생들은 하나도 떨림 없이 하나님께 찬양과 울동을 드렸다. 안양제일, 목양, 창동염광, 영락, 안산제일, 염산, 소망, 주안장로, 과천, 명성, 강릉, 대구에서 온 대구 남산교회 사랑부의 발표를 끝으로 2012 찬양제는 2013년 장애인 체육대회를 기약하고 막을 내렸다.

【송재봉 집사】

가족과 함께 한 사랑부의 야외예배



화창한 가을, 기도원에 도착한 사랑부 학생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가을 풍경을 찬양했다. 지난 10월 7일(주일) 사랑부는 ‘엄마 아빠와 함께하는 가을 야외예배’를 기도원에서 드렸다.

노준겸 안수집사(사랑부 부장)의 인도로 시작된 예배는 박영희 권사가 기도하고, 우경창 전도사가 ‘범사의 감사’(살전 5:18)를 제목으로 ‘모든 것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삽시다’ 라는 권면의 말씀을 전했다. 이어 봉헌 후 김수용 목사(OM국제선교회, 북한선교)의 뜨거운 축복의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기도원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마친 뒤에는 친교부에서 준비해 온 운동회와 다채로운 게임으로 함께 온 가족과 학생, 교사, 모두가 감사와 사랑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송재봉 집사, 사진 : 추연성 교사】

뮤지컬 '바울' 성황리에 공연



2012년 선교대회 전야제로 지난 22일(토)저녁 공연된 뮤지컬 '바울'이 베다니 홀을 선교의 열기로 가득 채웠다. 영락 문화선교 공연팀 휴트니스가 공연한 바 있는 뮤지컬 '바울'을 이번에는 Mj컴퍼니의 산하 Mj지저스미션이 공연한 것.

무대가 커진 만큼 더 크고 웅장하게 기획되었고, 객석을 메운 관객과 함께 호흡하는 공연이 도보로

17,000km나 걸으며 복음을 전파한 사도바울의 선교열정을 그대로 전달하여 주는 듯 했다.

조철한 목사의 기도로 시작된 이날 공연은 유혜정 작가(집사)의 협력연출, 차경찬 작곡자의 음악감독, 최무열 프로듀서의 연출, 뜨거운 열정의 배우들의 실 틈 없는 장면이 관객들은 뜨거운 갈채를 보냈다.

Mj지저스미션은 뮤지컬 '바울'을 대학로에서 9개월 동안 공연하며 3만여 명이 보고 갈 정도로 기독교 문화를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 세워진 단체라 더욱 기대가 된다. (공연문의: Mj지저스미션 ☎02) 468-6443)

【송재봉 집사】

2남선교회, '나로 우주센터' 찾아 수련회

제2남선교회(회장 : 이용희 안수집사)는 지난 10월 13일(토) 하나님의 창조적 섭리를 다시 한 번 깨닫는 시간을 가졌다.

이른 새벽 5시30부터 모이기 시작한 105명의 회원들은 피곤함도 잊은 채 감사한 마음으로 3대의 버스에 탑승했다. 전남 고흥 '나로 우주과학관'에 도착 후 해변에서 경건회를 드렸다.

심규한 목사의 말씀으로 감사함을 깨닫고, 오늘 일정을 주님께 맡기는 기도를 드렸다. 우주과학관 관람 중 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보면서 창조주의 오묘한 솜씨를 재차 확인하였고, 많은 사연을 안고 있는 소록도를 방문하였을 때는 회원들은 저절로 감사 기도가 나왔다. 이번 수련회는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온전한 몸을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뜻 깊은 감사수련



회가 되었다.

【송재봉 집사】

상담부, 홍보주간 마련하여 상담사역 소개



상담부(부장 : 박인규 장로)의 상담사역을 알리기 위한 홍보행사가 지난 10월14일(주일) 오전 8시부터 오후 3시까지 베다니광장에서 마련되었다.

상담부가 처음으로 홍보주간으로 정하여 실시한 이날 베다니광장에는 5개의 부스(안내 및 접수, 목회 가정 청소년상담, 법률 노무상담, 교통세무 금융상담, 결혼상담)를 설치하여 분야별 전문상담원과의 1:1 면접상담을 실시하는 한편, 홍보용 DID 영상을 통해 성도들로 하여금 문제에 접했을 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해결하여 나갈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행사로, 성도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김경옥 권사】

영월 청령포 등 돌아보며 가을소풍 가진 영락노인대학

영락노인대학이 지난 9월18일(화)과 20일(목) 양일에 걸쳐 강원도 영월로 가을소풍을 다녀왔다. 노란 모자를 쓰고 7시30분 각반 별로 본당에 모여 예배를 드린 노인대학 학생들은 봉사관 앞마당에 준비된 차량에 탑승하여, 전날까지 비가 내려 오히려 맑은 날씨를 주심에 감사하며 즐거운 소풍 길에 올랐다.

단종 유배지였던 영월 청령포 및 장릉을 둘러보며 역사를 돌아쳐보는 유익한 시간을 갖고 돌아온 영락노인대학 학생들은 가을하늘을 마음껏 즐겼다. 이번 가을 소풍 참가자는 모두 900여명이었으며, 이틀에 걸쳐 각각 450여명으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하루 동원된 차량만도 11대였으니, 이렇게 많은 인원



의 노인대학 학생들이 질서 있게 다녀올 수 있음에 감사하며 가을 소풍의 일정을 마쳤다. 【유승호 권사】

‘2012 선교대회’ 성황리에 마쳐



“일어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사60:1~3)”를 주제로 선교부(부장: 강신돈 장로) 주관으로 열린 ‘2012년 선교대회’가 지난 9월23일(주일)부터 26일(수)까지 개최되었다.

올해 선교대회는 오프닝 행사로 9월22일(토) 오후

6시 베다니홀에서 CTS방송국 뮤지컬팀의 ‘바울’ 뮤지컬 공연을 시작으로 개막되어 9월23일(주일) 선교주일 예배가 드려졌다. 이철신 담임목사는 말씀에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 경계를 뛰어 넘어 땅 끝까지 전도에 힘쓰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찬양예배는 첫 부흥집회로 한태수 목사(은평성결교회 담임)를 주 강사로 초빙하여 말씀을 듣는 선교부흥회로, 24일(월), 25일(화), 26일(수)까지 오후 7시 본당에서 진행되었다. 한 목사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사 43:1)”는 말씀을 시작으로 “다시 불타오르게 하라” “영혼 사랑하는 자여! 일어나라!” “전 세계를 가슴에 품은이여”라는 말씀으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을 깨닫게 하며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향한 사명을 확고히 하게하는 시종 열정적인 설교로 영락의 성도들이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었다.

또한 23일(주일)은 학원선교대회로도 드려져서 베다니 광장에 영락재단 산하 8개 학교별로 부스를 마련, 학교 홍보 전시회를 펼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과 복음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기독교 학교로서의 정체성을 교우들에게 알렸고, 찬양예배 시 복음의 인재를 길러내는 명문 기독교 사학으로 우뚝 설 것을 결단하며 학원선교보고 및 학원선교공연을 하여 성도들로부터 격려의 박수를 받았다.

또 24(월), 25(화), 26(수)일 오후3시부터 5시까지 50주년 기념관 드림홀에서는 '파송선교사와의 만남'이란 행사로, 장순재 안수집사(해외선교 차장)의 사회로 파송선교사 12명과 영락교회 교우들과의 만남의 시간을 가지며 선교 사역의 현지에서의 어려움을 전하고, 왜 선교사를 위하여 기도를 해야만 하는지를 알려 성도들의 끊임없는 기도와 후원을 당부하며 선교를 향한 사명을 깨닫게 하였다.

마지막 행사였던 '협동선교사 파송식'은 선교부흥회 넷째 날인 26일(수) 저녁예배 시 진행되었다. 지난



3월 우리 교회 김서영 안수집사가 전문인선교사로서 파송 예배 후 아프리카 잠비아로 떠났었는데, 이번 선교대회를 맞아 영락교회 협동선교사로 파송식을 하면서 자비량으로 사역을 떠난 김서영 선교사 부부의 헌신의 발걸음을 축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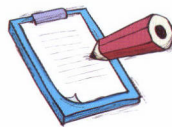
올해 선교대회의 현금은 앞으로 차세대 선교사를 발굴하고 일꾼으로 양성하여야 하는데 영락청년들의 선교훈련과 선교사 양성을 위해 쓰여 질 예정이다.

사진은 베다니광장 선교대회 행사장, ② 선교부흥회서 설교중인 한태수 목사(좌), ③ 파송선교사와의 만남(우), ④ 학원선교 홍보부스(아래) 【김경옥 권사】



‘만남’지가 성도 여러분의 글을 기다립니다.

- 주 제 : ‘나와 성탄절’, ‘성탄절의 추억’ 등
- 분 량 : 11포인트 기준, A4 2매 이내
- 마 감 : 2012년 11월 13일(화)



• 보낼 곳 : 영락교회 홍보출판부

e-mail : ehee64@hanmail.net, 전화 : 02-2280-0197~8

성향을 이룬 가을 특별새벽기도회

2012년 가을 특별새벽기도회가 지난 15일(월)부터 20일(토)까지 한 주일간 본당에서 '겸손한 기도, 넘치는 응답'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총동원전도주일'을 앞두고 어느 때보다도 많은 성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특별새벽기도회에서는 '평화적인 남북통일과 나라의 안정 및 교회의 사명을 위한 기도'와 더불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위한 기도'를 매일 드렸다.

특별새벽기도회 말씀을 맡은 이철신 담임목사는 첫 시간에 "한 주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바란다"며 서로에게 '임마누엘'로 인사하자고 권했다. 또한, 구체적인 기도제목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하여 넘치도록 응답받기를 바란다며, 기도의 원리와 약속에 대한 설명을 덧붙여 주었다.

구약 역대하를 본문으로 진행된 한 주간 말씀 제목은 다음과 같다.

△15일(월) '기도응답 약속(7:11~22)' △16일(화) '기도응답 실제(12:1~12)' △17일(수) '부르짖는 기도(14:2~15)' △18일(목) '기도와 믿음(20:1~4, 20~23)' △19일(금) '구체적인 기도(32:20~23)' △20일(토) '고난과 기도(33:10~13)'

이번 특별새벽기도회에 참석한 성도들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기록된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응답을 살펴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겸손하게 기도하는 시간을 보냈다.



특별새벽기도회 후에는 제1식당에서 식사가 제공되었으며, 기도로 새벽을 깨운 성도들은 식당에 삼삼오오 모여 말씀을 통한 성도들 간의 교제로 하루를 열어나갔다.

이철신 담임목사는 특별새벽기도회를 마치는 토요일 새벽에는 기도회에 참석한 학생들과 젊은이들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냈으며, 한 주간 집회를 위해 교통, 식사, 방송, 안내 등으로 수고한 분들에게 감사의 박수로 격려케 하는 한편, 이번 특별새벽기도회 주제처럼 '겸손하게 기도해서 넘치도록 응답받기를 바란다'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생명을 구원하는 이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기도하는 축도로 특별새벽기도회를 마무리했다. 【유승호 권사】

“젊음으로 드리는 찬양의 향연” 대학부찬양대의 29번째 가을음악회

지난 10월6일, 베다니홀에서는 대학부 찬양대의 29번째 가을음악회가 대학부 주최로 열렸다. 대학부 찬양대는 이날 오랜 시간동안 기도와 연습으로 준비해온 연주회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무대를 선보였

다.

김주현 집사(대장)의 기도로 시작된 이날 음악회의 1부는 Ave Verum 으로 시작하여 존 루터의 현대성 가곡으로 진행되었다. 감미로운 멜로디와 은혜로운

가사가 잘 조화를 이룬 아름다운 찬양들이었다.

2부에서는 앙상블의 관현악과 솔리스트들의 연주가 있었다. 전공자로 이루어진 솔리스트들이 그 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멋지게 뽐내는 시간이었다. 3부는 모차르트의 대관식 미사에 수록된 전 곡으로 진행되었다. 모차르트의 곡답게 웅장하고 경쾌한 멜로디에는 신앙고백의 가사들이 넘쳐났다. 본 연주 후에 찬양대는 1부에서 연주했던 존 루터의 A Clare Benediction에 한글가사를 붙여 앙코르곡으로 선사했다.

찬양대의 모든 연주가 끝난 후에는 박남진 대학부 부장장로의 축하와 꽃다발 증정에 이어 백성우 대학부 지도목사의 축도로 음악회는 막을 내렸다.



음악회 후에 만난 한 대원은 가을음악회가 “많이 부족했지만 주께서 허락하신 젊을 때의 시간과 재능을 드려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었던 감사한 시간”이었다고 고백했다. 【제공 : 오계환 안수집사】

베다니찬양대 야외예배, 영락기도원서 가져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가을의 정취가 물신 풍기는 영락기도원 한편에서 각각 다른 4성의 화음으로 찬양예배를 드린 베다니찬양대를 찾아갔다.

10월20일(토) 오전부터 화창한 가을의 풍경을 감

사하며 모인 50여명의 베다니찬양대는 기도원 세미나동에서 찬양과 감사의 예배를 드렸다. 대장 김원상 장로의 인도로 부대장 김봉양 안수집사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고, 이어 정지훈 지도목사는 ‘베다니 사람들’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 “베다니 찬양대는 각각 다른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찬양하지만 그 옛날 예수님이 베다니 마을의 개개인은 다르지만 모든 사람들을 사랑했듯이, 오늘도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찬양대원 한사람 한사람을 사랑하고 계심을 믿고,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는 찬양대가 되어 감사와 기쁨이 넘

치며,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권면했다. 경건회를 마치고 식사와 산책 후에는 친교부장 이영문 안수집사의 진행으로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송재봉 집사】

'2012 영락 총동원전도주일'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란 슬로건으로 내건 '2012 총동원 전도주일' 행사가 지난 9월 9일 선포주일로 시작되어 9월16일 둘째 주는 전도 대상자 작성주일로 정하고, 성도들에게 예배 중에 전도 대상자를 작성하여 제출토록 하였다. 이에 각 교구에서는 교구텔레이 기도 순서를 갖고 9월21일(금)부터 10월20일(토)까지 벨원 기도실에서 작성한 전도 대상자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기도해왔다.

한 영혼 전도를 위해 온 힘을 기울이기 위해 선교부 전도팀에서는 지난 9월부터 베다니광장에 전도도우미 부스를 설치하고 전도지와 전도책자 등 전도



용품을 비치하여 전도에 적극 활용하도록 했다.

또한 전도를 위한 특강으로 10월7일 첫 주 찬양예배 시 하귀선 사모(티미널교회, 찬양사역자)와 14일 둘째 주 찬양예배에는 김정식 목사(전 코미디언, 장애인목회 사역자)를 초청하여 간증을 듣고 전도에 대한 열정을 새롭게 하며 총동원 전도주일을 위해 힘써



왔다.

총동원 전도주일 당일인 10월21일 교회 마당 곳곳에는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라는 현수막이 날리어 잔치 분위기를 한껏 느낄 수 있었다. 이날 총동원 주일로 드러지는 예배의 1부에서 5부까지 설교를 맡으신 이철신 담임목사는 '영접의 기쁨(요한계시록 3:20)' 이란 제목으로 "문밖에 찾아오신 주님이 우리의 영혼을 두드릴 때 주님 음성을 깨닫고 그 문을 열어 우리의 인생을 맡기면 주님께서서는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또 우리는 자녀가 되어 우리의 인생을 다스려 주시므로 평안한 인생길을 가게 된다"라고 말씀을 전했다. 예배를 마치고 새가족과 인도자는 베다니광장에 마련된 등록 장소에 들른 후, 제1, 2식당의 각 교구별 만남의 장소에서 교구식구들의 환영을 받고 준비한 다과를 나누며 교구목사님과 대화와 기도를 통해 결신을 확고히 할것으로 믿는다.아무쪼록 새가족들의 첫걸음이 복된 발걸음이 되기를 기도한다.

[김경옥 권사]

'제8기 영락 어머니학교' 성황리에 마쳐

어머니로서의 자존감을 새롭게 심어주고, 가정 속에서 어머니로서 건강하고 바람직한 모습이 무엇인가를 강의와 예식, 나눔을 통하여 일깨우며, 가정을 건강하게 이끌어가는 믿음 있는 어머니들의 행복이 야기가 펼쳐지는 '영락 어머니 학교'가 지난 9월13일(목)부터 10월11일(목)까지 5주간에 걸쳐 실시되어, 영락교회성도와 타교인 어머니 등 51명이 참여하여 수료하였다.

어머니학교의 주요 프로그램은 각 시간 과제물 준비 후, 첫 주는 '여성상의 회복' 이란 주제의 권경인 교수(광운대)의 강의와 애찬식, 둘째 주는 '어머니의 영향력'을 제목으로 한 김형숙 박사(ADHD전문가)의 강의와 죄 태우기, 촛불예식, 셋째 주는 '행복한 아내의 사명'을 다룬 이영미 전도사(상담부 가정사역전담)의 강의와 입관예식, 넷째 주는 문화나들이로 영화관람과 남산나들이 행사를 진행하였고, 다섯 째 주에는 '어머니의 영성' 이란 주제로 손영규 목사(영락교회)



의 강의와 세족식을 끝으로 어머니로서 정체성을 회복하며 감동과 위안의 시간을 보냈다.

어머니학교를 수료한 어머니들은 가정에 돌아가 그리스도의 어머니로서 또 어떠한 아내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우쳐,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는데 부족함 없는 어머니로 우뚝 설 것을 기대해 본다.

사진은 "주님, 제가 어머니입니다"를 제창하는 어머니학교 학생들. [김경옥 권사]

고등부, 문화·전도축제 'Shine 2012'

총동원 전도주일의 고등부 예배는 고등부 학생들이 새 친구들을 초청하는 'Shine 2012' 라는 문화축제 예배로 드림홀에서 드러졌다.

이날 설교를 하신 교육부 김성수 목사는 '아카페 사랑(누가복음 15:20~24)' 이란 제목으로 탕자의 비유를 통해 다시 돌아와 맞아주시는 주님의 사랑의 말씀을 전했다.

2부 문화공연으로 특별부서인 워십댄스반의 공연, 권주희 교사와 학생의 중창, CCM가수의 바이러스의 공연으로 흥을 돋우며 새로 온 친구들을 환영했다. 이날 행사에는 대한극장에서 상영하고 있는 '사랑의 빛이 된 한경직' 영화를 고등부 학생들이 단체로 관람 하였고, 고등학생 자녀를 두신 성도들은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같이하여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 가도록 적극 권면했다. 【김경옥 권사】



대학부, 2012 친구초청예배 'Mate Day'



11:6,11)'란 제목으로 니고데모, 마리아, 삭개오의 삶을 예를 들어 "삶 가운데서 실패를 하며 죄를 짓고 외롭게 살아가지만, 예수님의 눈길에 노출되어 다시 일어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된다"라며 "늦어버렸지만 주님을 찾으면 반드시 상을 받는다"라고 전했다.

총동원 전도주일의 대학부 예배는 친구초청예배로 드림홀에서 오후 1시에 드러졌다. 이날 설교는 대학부 전담 백성우 목사의 '주님, 늦었습니까?(히

대학부 학생들은 새로운 친구들을 환영하며 또 교회에서 베푸는 피자를 나누며 함께 즐거워하는 가운데 축제의 분위기가 무르익어갔다. 【김경옥 권사】

예장(통합) 총회장에 손달익 목사 부총회장엔 김동엽 목사, 전계옥 장로 선출

우리 교회가 속해있는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새 총회장에 직전 부총회장인 손달익 목사(서문교회-왼쪽 사진)가 추대되고, 부총회장에는 김동엽 목사(목민교회-오른쪽 사진)와 전계옥 장로(영송교회)가 선출되었다.



스도인, 작은이들의 벗'을 주제로 제97회 총회를 열어, 직전 목사 부총회장인 손달익 목사를 회장으로 추대하고, 두 명의 부총회장을 위와 같이 선출한 것이다.

예장(통합)총회(회장: 박위근 목사)는 지난 9월 17일부터 5일간 서울 소망교회(김지철 목사)에서 '그리

총회 임원의 임기는 1년이며, 목사 부총회장은 조례에 따라 차기 총회장을 맡게 된다.

예장(통합) 한국교회연합 가입, 한국기독교총연합회에서는 탈퇴 결의



한편 예장총회(총회장: 손달익 목사)는 지난 9월 20일 소망교회에서 계속된 제97차 총회에서 행정보류 중이던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에서 탈퇴하는 것과, 한국교회연합(한교연)에 가입을 결의했다.

이에 따라 예장(통합)교단은 한경직 목사를 중심으

로 창립되었던 한국기독교총연합회에서 23년 만에 손을 떼게 된 것이다.

이 같은 예장(통합)교단의 한기총 탈퇴는 최근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상황들이 함께 참여하기 힘든 만큼의 문제가 있음에 따라 한기총을 태동시킨 교단으로서 참여 여부를 결단할 때라는 다수의

여론에 따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외 몇몇 교단(예장 대신, 백석, 한영)들도 한교연 가입을 결의하고, 한기총은 행정보류를 유지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계소식 정리 : 신영삼 인수집사】

영락사회복지재단 창립73주년 기념 감사예배



영락사회복지재단(이사장 : 안순근 장로)의 창립 73주년 기념 감사예배가 지난 9월25일(화) 오전 10시 영락교회 선교관에서 드려졌다.

뜻 깊은 자리에서 이석우 목사의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는 말씀과 CAL Trio의 참 아름다워라! 특주가 더해져 더욱 은혜롭고 귀한 자리가 되었다.

영락사회복지재단이 73년의 길을 걸어오며 전국에서 최우수시설로 인정받기까지는 일선에서 수고한 직원들과 좋은 정책으로 이끌어준 이사회와 교

회, 재단을 믿어준 후원자님과 봉사자님들이 계셨기에 가능했다. 이에 그동안 수고한 직원들의 노고를 기억하며 장기근속 직원을 표창하고, 기부로 함께 해 주신 후원자님과 현장에서 땀 흘려주신 봉사자님께도 감사패를 전달했다.

73주년 창립기념감사예배에 참석해 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는 재단이 되기 위해 더 정직하고 투명하게 운영할 것을 다짐한다.

【영락사회복지재단 제공】

제2남선교회

선교보고회

주제 : 어린 생명을 그리스도의 품으로, 그 곳에 생명수를!

2012년 11월 10일(토) 오후 3시30분
영락교회 베다니홀

내용 : 특강, 선교보고, 합창, 성극
특강 : 정애리권사 (월드비전 친선대사)
대상 : 제2남선교회원(부부) 및 전교우
주관 : 제2남선교회
후원 : 선교부, 남녀선교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영락교회 제2남선교회**

믿음의 가문을 세우는 교회(창18:19)

영 락 화 랑



풍성한 속으로 (Oil On Canvas, 53 X 40.9 cm)

안 원 희 권사

용인·화성교구 | 한국여성작가회 회원